News p/4

선진국 검찰 견제장치는?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12일 금요일 제3235호 www.metroseoul.co.kr

Life p/16

외식업계 '메르스직격탄'

점점 말려드는 최지성팀

엘리엇 '먹튀'보다 '진흙탕 전략' 인듯
주총 이겨도 국제소송가면 불리
'오기' 아닌 현실적 대안 모색해야

엘리엇이 분석한 삼성물산의 합병 전후 자산가치 변화.

날짜	내용
2015. 5.26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 합병결의, 합병비율 제일모직 : 삼성물산=1 대 0.3500885
2015. 6. 4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경영참여 목적 보유공시, "합병비율 삼성물산에 불리, 합병반대",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현물배당 가능하게 정관변경 요구 주주제안서 삼성물산에 제출.
2015. 6. 9	엘리엇, 삼성물산 및 이사진 상대 주주총회 합병결의금지 가처분신청
2015. 6.10	삼성물산, 자사주(5.76%, 899만557주) 주당 7만5000원에 KCC에 전량매각 공시, 삼성물산 우호지분 총 19.38%로 확대.
2015. 6.11	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삼성물산 임시주총 주주명부 폐쇄
2015. 7.17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예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개시
2015. 8.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완료
2015. 9. 1	합병삼성물산 출범 예정

엘리엇의 삼성물산 공격 일지.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세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 컨트롤 타워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11일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이 불법이라며 삼성물산과 이사진·KC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날 '백기사'를 자처한 KCC가 삼성물산 자사주 전량(899만여주)을 취득해 지분 5.79%를 확보한 데 대한 대응이다.

엘리엇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엘리엇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하기로 한 것은 합병공시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두 회사의 노하우와 경쟁력, 인프라를 결합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물산의 공시대로라면 향후 자사 주식가치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스스로 예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사주를 '합병가결을 위해' 다 팔아치웠으니, 논리적으로 회사에는 미래 이익에 대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엘리엇이 자사주 매각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현행 안대로 끌고가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매각을 통해 우호지분을 19.95%로 늘렸지만 주총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9.98%)을 아군으로 끌어들여도 우호지분은 30%가 되지 않는다.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합병 가결 요건인 3분의 2 (66.6%)에 턱없이 모자른다.

70% 정도의 주주만 총회에 참석한다고 해도 삼성물산에겐 우호 지분이 17% 가량 더 필요하다.

7월17일 주총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이 통과돼도 불안 요소는 남는다. 엘리엇의 법정 공세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이후에도 삼성물산 주식 매집을 계속해 지분을 늘인 다음 독자적으로 임시주총을 소집요구하거나 영국이나 미국 법정에 합병 무효나 배임 소송을 끌고 갈 수 있다. 주주가치를 우선하는 미국과 영국 법원으로 갈 경우 엘리엇이 불리할 수 있다.

삼성 측에서는 엘리엇이 문제삼은 합병비율을 미국에서는 합병당사자 회사들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미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합병사와 피합병사가 합병비율을 정할 때 최근 주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도 주요한 참고사항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조언이다.

미국·영국 증권당국은 한 기업 주주 가치가 일방적으로 훼손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병승인을 보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원도 주주가치에 보다 철저한 경향이 있다.

결국 이번 건이 현행 합병비율대로 강행된 채 미국이나 영국의 법정으로 갈 경우 엘리엇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1일 종가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삼성물산이 0.86, 제일모직이 3.92이다. 결국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턱없이 낮게 주가에 반영된 시점에 합병을 강행한 것은 일종의 배임행위라는 주장을 엘리엇은 국내외에서 집요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최지성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의 빠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합병비율의 재산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병이 종국적으로 실패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의 지배구조 개편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엘리엇의 진흙탕 싸움 전략에서 삼성이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원활한 합병추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최 부회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오산 탄저균 실험, 2007년 부시 지시가 발단

'공중보건과 의학적 준비' 제목으로 하달 오바마 지시로 軍 적용·목성프로젝트 수립

오산 주한미군기지에서의 탄저균 실험은 2007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발단이었다. 한국의 안전을 좌우하는 결정이라기엔 너무나 간단했다.

11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7년 10월 18일 부시 대통령은 국토안보대통령지시(HSPD-21)를 하달했다. '공중보건과 의학적 준비'라는 제목의 대통령지시다. 이 지시문에는 오산기지에서의 탄저균 실험을 계획한 목성(JUPITR)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다.

지시문은 4가지를 강조했다. △조기경보(early warning) △빠른 결정과 대책배포(distribute and dispense countermeasures to there populations within 48hours after a decision to do so) △치명적인 보건사고 발생시 만족할만한 수준의 즉각적인 의료 대응능력(disaster medical capability that can immediately reorient and coordinate existing resources within all sectors to satisfy the needs of the population during a catastrophic health event) △공공보건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ng community public health) 등이다.

목성 프로젝트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생물무기감시포털(BSP) △생물식별능력(BICS) △환경탐지평가(AED) △조기경보 등과 그 내용이 비슷하거나 일치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취임후 두 번째 대통령정책지시(PPD-2)를 하달했다.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실행'이라는 제목의 지시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7월 실행명령(EO-13546)을 발효한다. '미국 내 생물작용제와 독소에 대한 보안 최적화'라는 제목의 실행명령이다. 이 명령문에는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주요 정책을 국가안보의 주요기초로 삼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후 미 국방부는 2012년 11월 목성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미 국방부는 2013년 3월 이후 관련 문서와 영상 자료 공개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모를 밝힌 바 있다.

공개된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목성 프로젝트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하고, 분석장비와 감시기를 설치해 최종적으로 조기경보체계를 갖추자는 게 골자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는 지난해 12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성 프로젝트는 확실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실험"이라며 "BSP는 이런 실험의 완벽한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SP는 이미 우리의 동맹인 호주와 영국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괄하고 있다"며 "또 다른 나라들이 포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는 탄저균 실험 내용도 담고 있다. 목성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는 조기경보체계의 주요 적용 대상이 바로 탄저균이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The White House
President George W. Bush

For Immediate Relea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October 18, 2007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HSPD-21

Subject: Public Health and Medical Preparedness

Purpose

(1) This directive establishes a National Strategy for Public Health and Medical Preparedness (Strategy), which builds upon principles set forth in *Biodefense for the 21st Century* (April 2004) and will transform our national approach to protecting the health of the American people against all disasters.

Definitions

(2) In this directive:

(a) The term "biosurveillance" means the process of active data-gathering with appropriat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biosphere data that might relate to disease activity and threats to human or animal health – whether infectious, toxic, metabolic, or otherwise, and regardless of intentional or natural origin – in order to achieve early warning of health threats, early detection of health events, and overall situational awareness of disease activity;

(b) The term "catastrophic health event" means any natural or manmade incident, including terrorism, that results in a number of ill or injured persons sufficient to overwhelm the capabilities of immediate local and regional emergency response and health care systems;

(c) The term "epidemiologic surveillance" means the process of actively gathering and analyzing data related to human health and disease in a population in order to obtain early warning of human health events, rapid characterization of human disease events, and overall situational awareness of disease activity in the human population;

(d) The term "medical" means the science and practice of maintenance of health and prevention, diagnosis, treatment, and alleviation of disease or injury and the provision of those services to individuals;

(e) The term "public health" means the science and practice of protecting and improving the overall health of the community through disease prevention and early diagnosis,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s, health education, injury prevention, sanitation, and protection from environmental hazards;

2007년 10월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국토안보대통령지시(HSPD-21).

'OPEC vs US' 치킨게임 승자는

사우디, 지난달 산유량 사상 최고치 경신… 승리에 '쐐기'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난 5월 산유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OPEC은 미국의 셰일업체들과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사우디의 강수는 미국업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가 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OPEC에 보낸 보고서에서 지난 5월 산유량이 하루 1033만 배럴이었다고 밝혔다. 사우디의 4월 산유량은 하루 1031만 배럴이었다. 2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우디 석유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우리의 석유 생산이 늘어난 것은 시장 상황, 특히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 주요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는 원유가 하락을 통해 미국 셰일업체들에게 가격 부담을 지우기 위한 강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셰일은 생산비용에서 기존 원유에 불리하다.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 노스다코다주 바켄과 텍사스주 이글포드 등 주요 셰일가스 산지에서의 산유량이 지난달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는 1.6%로 추가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사우디 '메르스 전문가' 입국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 확산 양상을 분석할 사우디아라비아 질병예방통제센터 소속 전문가(가운데)가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차례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대표단과 1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리퍼트 "한·미 정상회의서 남중국해 한국역할 주문"

최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해지는 와중에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가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에 이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강한 역할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리퍼트 대사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가 더 크다"며 "공해의 자유항행권,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이 모든 것이 남중국해에서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한국이 이 보편적이고 국제적 원칙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면 보다 더 안전한 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주체들에게 정통성과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한국이)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미 정상회담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방문연기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께서는 향후 서로 편리한 시기에 박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맞아 중요 사

미중 파워게임의 최전선 '남중국해 인공섬'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의 모습. 준설선들이 매립 작업에 한창이다.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해 남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 지역을 지나는 모든 항공기는 ADIZ를 설정한 중국에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연합뉴스

"남중국해 문제, 한국 더 노력해야" 압박 "박 대통령 방미일정 연기, 충분히 이해해"

항을 논의하기를 고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2013년 당시 아시아 순방을 연기한 뒤 다시 일정을 잡았고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방미 일정 조율 경위에 대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공식발표 이전에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급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일이 평화, 화해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특히 한국 국민을 만족시킬 해결책을 찾아 치유와 화해가 이 지역에 정착됐으면 하는 희망적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미일방위지침 개정 논란에 대해서는 "미·일조약의 틀 안에서 이뤄졌고,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했고, 제3국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추진된다는 내용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와있다"며 "한국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논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90·98·115번 환자發 '3차 유행' 우려

각지로 흩어진 후 방치돼… 당국 초긴장

90·98·115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3명이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이은 3차 유행 후보군으로 지목됐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 특위에 참석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평택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유행,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에 이어 이제 3차 슈퍼전파자가 있느냐가 고비"라고 말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3차 슈퍼전파자로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이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사망한 90번 환자냐"고 묻자 "후보 중 하나가 맞다"고 답했다. 다른 후보 환자들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두 군데 (병원 환자)가 더 있다"며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98번 환자), 경남 창원 SK병원(115번 환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90번 환자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지난 8일 확진돼 치료를 받는 중에 10일 사망했다. 이 환자는 열흘가량 옥천 안팎의 병원 여러 곳을 드나들며 진료를 받았다. 먼저 옥천성모병원에서 세 차례, 곰바우한의원과 옥천제일병원에서 각각 네 차례 진료를 받았다. 이어 지난 6일 을지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4곳을 옮겨 다니며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이다.

98번 환자도 지난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다 감염된 환자다. 이 환자는 지난 4~7일 메디힐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 직후 다시 입원해 1인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8일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으로 이송됐다. 확진 판정을 이곳에서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추가 노출이 없었다. 하지만 메디힐병원에서는 수일간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힐병원에서 98번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은 242명이나 된다. 방역 당국은 이곳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경찰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주변인의 메르스 의심 또는 확진에 따른 자발적 휴가자 27명만을 파악했을 뿐 경찰의 메르스 의심자, 자택 격리자, 환자 접촉자 등의 현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현직경찰 등에 대한 메르스 추적관리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틀이 지나서야 겨우 파악할 담당 부서를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직·간접적으로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선 경찰의 안전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선경찰을 통해 메르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진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전남 보성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 격리에 나선 경찰대원들이 근무교대를 하며 생수로 손을 씻는 모습. /연합뉴스

115번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 감염됐다. 이 환자는 확진을 받을 때까지 열흘 넘게 병원 곳곳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29일 창원힘찬병원, 3일 가족보건의원, 4일 창원힘찬병원 등을 거쳐 5일 창원SK병원에 입원해 10일까지 머물렀다. 방역 당국은 이 환자가 약 549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5번 환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삼성서울병원은 이 환자가 응급실 인근의 1층 로비 화장실에서 14번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14번 환자는 35세 남성이고 115번 환자는 77세 여성이기 때문이다. 화장실 앞에서 잠깐 스치는 것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성공불융자 '밀실 거수기' 심사… 회의록도 삭제

7500억 혈세 낭비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추진 과정에서 밀실 부실심사로 750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사회의록에는 위원들의 실명이 삭제돼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기초서류조차 없는 사업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등 84년부터 최근까지 7553억792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이 기간에 지원된 성공불융자 3조2007억원의 24%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성공불융자금 심의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자원외교 기간에 밀실 부실심사가 집중됐다. 모두 3824억원에 달한다.

2009년 러시아 캄차카 탐사사업의 경우 심사위원들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상황임을 알고도 논의조차 없이 대출을 승인했다. 당시 위원장은 경남기업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를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21억원을 융자해 줬다. 융자금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액 미회수 상태다.

자원외교 수사에서 시작된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당초 성공불융자 비리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서 시작됐다. /연합뉴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회의록에는 위원들의 실명이 모두 삭제된 상태라 특혜를 주도한 위원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공불융자 융자심의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위원들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밀실심사를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9~2014년까지 석유사업 융자심의회에서 처리한 196건 가운데 부결은 단 5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정부를 향해 "항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높은 위험만을 강조하지만 정작 투명해야할 융자심사는 밀실에서 거수기를 시켜 멋대로 진행해 왔다"며 "잘못된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보류

국회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보류했다. 애초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송 보류는 중재안에 대한 야당의 수용을 기다리자는 취지다.

정 의장은 이날 최형두 국회대변인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안다"며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기 위해 이송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 부분에서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는 '검토해 보고한다'로 바꾼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박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돌아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재의결 기준점이 된다.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정 의장은 이와 별개로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은 정부에 이송했다.

/윤정원기자

'마스크 없이' 메르스 병원 방문한 김무성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텅 빈 응급실을 둘러보고 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규정대로 메르스에 대처했지만 환자가 빠져 나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마스크 없이 병원을 둘러봤다. 병원의 안전을 국민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연합뉴스

美·日·獨 등 철저한 검찰 견제장치 채택

검찰 기소독점 이대로 좋은가

대배심·검찰심사회·기소강제주의 등 선진국선 일반화

권력층과 재벌 총수 등 이른바 '거물들'이 각종 비리로 법정에 서는 일은 심심찮게 발생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만한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 비판여론에 밀려 감옥까지 가더라도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통해 슬그머니 풀려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무소불위의 검찰 재량권이 이런 불합리의 핵심 고리에 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검찰의 재량권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위해 기소 단계에서부터 대배심제도 등 각종 견제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처럼 기소 과정에도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11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은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원이 사형이나 중형 등의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의견을 심리하고 기소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3명의 배심원 중 12명의 동의를 얻은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다.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물도 대배심에서는 참조할 수 있다.

예컨대 '삼성X파일' 사건 수사의 도화선이 된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도 미국 대배심제도에선 증거물로 쓰일 수 있다. 당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를 포기한 일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검사를 지휘하는 검사장도 시민이 선출한다. 검사장 선출과 대배심 제도의 결합이 검사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있다.

일본도 1948년 미국의 대배심과 유사한 '검찰심사회'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엔 이 기구의 결정이 권고사항 효력에 불과했지만 2009년 구속력을 부여해 미국식 대배심과 같게 했다. 일본은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영장 청구도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검찰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권력을 나눔과 동시에 견제 시스템도 도입한 것이다. 2012년에는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한 도쿄지검 특수부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검찰심사회가 다시 수사하라는 결정을 내려 기소된 사례도 있다.

독일 검찰의 경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무조건 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에 수사권이 있지만 인력 편성은 돼 있지 않아 사실상 지휘만 가능한 구조다. 가벼운 범죄 사건에 한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인 소추 제도도 운영 중이다.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여부를 재량껏 결정하는 우리나라 검찰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결합돼 납득하지 못할 결론이 날 경우가 적지않았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당시 검찰 수사에 의해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건은 기소독점주의의 비합리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재정신청제도가 있지만 실제 인용률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재정신청을 거쳐 기소 결정이 나더라도 공소 유지를 다시 검찰이 맡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찬종(법무법인다올) 변호사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큰 사건에 한해 강제력은 없어도 의견을 듣는 제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이규태 '이면계약'에 놀아난 공군

검찰, 군으로 수사 확대

이규태(65·구속기소·사진) 일광공영 회장이 주도한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하청대금 돌려주기와 중개수수료 대납, 연구개발 '면책' 등 각종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광공영과 국내외 참여업체가 1100억원대 사업비를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군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SK C&C는 2007년 12월28일 이 회장과 '업무제휴협약서'를 맺었다. "SK C&C를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해주면 하청대금의 32%를 일광공영이 지정하는 업체에 재하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의 국내 판매대리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협약은 방위사업청이 하벨산에 정식으로 제안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체결됐다. SK C&C가 EWTS 사업의 국내 유일 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이다다. 이들이 C2(주전산장비)·SAS(신호분석장비)·TOSS(채점장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맡았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 때문에 사업 상당 부분이 솔브레인등 이 회장의 계열사로 재하청됐다.

이 회장은 SK C&C와 이면계약 이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청대금 529억원(4천412만달러)의 32%인 170억원을 TOSS 연구·개발 재하청 대금으로 요구했다. SK C&C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는 대신 하벨산으로부터 C2 연구개발에 대한 '면책'을 약속받았다.

재하청을 받은 일광공영 계열사 솔브레인은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C2는 국내 연구개발 없이 하벨산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비 그대로 장착됐다. 부실 장비에 대한 책임이 공중에 떠버린 셈이다.

SK C&C는 당초 이들 장비의 유지·보수와 후속 군수지원까지 해주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필요한 기술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일광공영·하벨산 등과 이런 수법의 EWTS 납품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전 SK C&C 전무 윤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공군 준장 출신인 이 회사 전 상무 권모(61)씨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합수단은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EWTS 업무를 맡은 신모(50) 중령을 구속하고 연루된 군 인사가 더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연미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국가인권위 옥상에서 고공농성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비전 위에 올라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서초 세 모녀 살해 가장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8)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형 선고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강씨의 범행은 경제적 상황에 비춰보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향후 경제난'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부인과 두 딸을 처참히 살해했다"며 "강씨는 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면제를 준비하고 목도리로 확인사살까지 하고도 아무 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이날 치료감호소에 제출된 정신감정에 의하더라도 강씨에게는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데 아무런 정신장애가 없는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무 반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강씨는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형벌이고 천형으로 느끼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강씨를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강씨는 범행 당시 중증 우울증을 보이는 중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살을 결심했지만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강씨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정신감정 보고서와 양형조사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중증 우울증을 보이고 있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형사책임 능력과 관련해서는 건재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양형조사보고서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강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다만 확정적인 의사라기보다는 피해자 가족들이 복잡한 심경을 보이고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사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3시쯤 자신이 전날 밤 건네준 수면제가 든 와인을 먹고 잠이 든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8살인 둘째 딸과 13살인 큰 딸도 같은 방법으로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삼성서울병원 갔다가… 메르스 전국 확산

확진자 122명… 시흥·동탄·김제·전주·창원·옥천 등 지역각지 전파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임신부 1명을 포함한 14명이 메르스 추가 확진을 받아 메르스 확진자가 모두 122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추가 확진자 14명 가운데, 40대 임신부 1명을 포함한 8명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1명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15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명의 감염경로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했다..

11일 확인된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 내원했다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확진자 122명 가운데 임신부는 처음이고 외국에서도 임신부 감염 사례가 적어 일반 환자와 다른 합병증 등 위험성에 대한 근거는 많지 않아 치료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삼성서울병원에서는 계속 메르스환자가 나오고 있어 2차 메르스 거점병원이란 오명을 피할수 없게 됐다. 이미 어제(10일) 전북 전주에 이어 경남 창원에서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앞서 강원도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로써 지난 8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환자를 발표한 이후 11일까지 이 병원을 통해 감염된 환자는 전국에 걸쳐 모두 52명에 이른다. 이는 122명의 메르스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 또는 병문안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 대거 메르스에 노출되었다. 이들은 시흥, 군포, 용인, 동탄, 김제, 순창, 보성, 창원, 부산, 옥천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 메르스 특별팀은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77살 조 모 씨가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 사는 조 씨는 지난 5일 거주지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렴 증세를 보여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보건당국은 조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격리하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북과 경남에 이어 전남에서도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첫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인 A(64·전남 보성)씨에 대한 2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

폐렴질환을 치료받고 있던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삼성병원에서 5시간 가량 머무르면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4번 환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A씨와 접촉했던 가족과 성당 관계자, 결혼식장 참석자, 직장 동료 등 밀접 접촉자 40명을 이날부터 자택격리 조치했다.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 A씨와 접촉한 사람 중 메르스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기준으로 전남지역의 메르스 관리인원은 A씨를 제외한 13명이며 이중 12명은 자택격리, 1명은 기존 질환 치료를 위해 전남 지역 한 병원에 입원중이다.

메르스 청정지역인 강원도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옥천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강원도 원주에서 2명이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난데 이어 속초에서도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강원지역 메르스 확진자는 3명으로 늘었다.

한편, 복지부는 기존 유료였던 메르스 핫라인 109를 11일 9시부터 24시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긴급조치 9호 '옥살이' 1억원대 형사보상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무죄 선고받아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노영민(58)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억원대 형사보상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노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노 의원에게 1억342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형사사건으로 인해 644일 동안 구금을 당했음이 명백하다"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상금 한도를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하루 보상금액을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5배인 20만8400원으로 정했다.

앞서 노 의원은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형이 확정돼 1977년 10월~1979년 7월까지 1년 9개월여 동안 옥살이를 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이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홍원기자 hong@

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147억 부족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늘렸지만 여전히 147억원이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4318억원을 증액한 8조 121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본예산보다 5.6% 증액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때 부족하게 편성한 누리과정 등 교육시책사업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누리과정이 포함된 교육사업비가 본예산대비 26.8% 많은 3458억원 증가했다. 다음으로, 시설사업비가 24.8% 늘어난 947억원 증액됐다. 반면 인건비는 상반기 집행결과를 토대로 실소요액을 추정해 134억원 감액됐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보육료 편성을 위해 목적예비비 및 교부금지방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1952억원과 인건비, 사업비 등 교육청에서 자체 조정한 531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15일분에 해당하는 147억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교육부의 추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147억원을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자체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대법 "선거 앞둔 출판기념회서 밥값 대납… 위반"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현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밥값 일부를 대신 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7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홍씨가 출판기념회에서 밥값을 대신 낸 시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년 4월 13일로부터 2년 8개월 전이라고 해도 홍씨의 기부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63·제주시 갑) 의원 고교 선배 홍씨는 2013년 8월 제주 애월읍 한 식당에서 열린 강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가 식사비를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씨는 참석자 100여명의 식사비 120만원 중 48만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모금함도 있었지만 모금액이 102만원에 불과해 책값 30만원을 제외하면 72만원으로는 120만원의 밥값을 낼 수 없게 되자 홍씨가 나머지 48만원을 대신 내 준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는 "홍씨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해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비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년 8개월 남았다는 기간만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홍씨의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홍원기자

재소자 결핵균 옮아 숨진 교정공무원 '공무상재해'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의뢰를 하는 업무를 하다 폐렴에 걸려 사망한 교정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2001년부터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한 A씨는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2012년 6월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다.

이어 같은해 7월엔 늑막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마친 2013년 4월 폐렴 진단을 받고 두 달 만에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직접 사인인 혈액암과 업무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결핵성 늑막염 발병 당시 잠복한 결핵균이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지자 폐렴이 돼 사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소자의 가래로 감염된 결핵은 공무상 질병"이라며 "망인은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으로 유발된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두산重, 초임계 CO_2 발전기술 상용화

美 에코젠과 협약

두산중공업(대표이사 부회장 박지원)이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술 상용화에 나섰다.

두산중공업은 미국 에코젠파워시스템즈와 초임계 이산화탄소 폐열회수 발전설비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술은 고효율, 발전설비 소형화 등의 장점을 가진 차세대 발전기술로 꼽힌다. 에코젠파워시스템즈는 세계 최초로 7MW급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설비 실증시험에 성공한 업체다.

기존의 발전설비는 고온고압의 증기로 발전소 주기기인 터빈을 구동하는 방식이다. 반면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술은 이산화탄소를 가열해 터빈을 돌린다. 이산화탄소는 증기에 비해 낮은 온도와 압력으로도 초임계 상태에 도달하는 특징이 있다.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또 주요 설비의 소형화가 가능해 발전소 건설비용이 적게 들고, 수분으로 인한 터빈 부식이 없어 내구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술은 특히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시멘트, 철강 등 산업 플랜트 발전설비용으로 각광을 받는다. 플랜트에서 나오는 폐열은 온도가 높지 않아 버려지는 실정이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발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용진 두산중공업 전략기획총괄은 "시멘트, 철강 플랜트 발전설비용만 놓고 볼 때 세계 시장은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두산중공업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3월 발표한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에 따라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시스템을 개발해 에너지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정필기자 roman@

5일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본사에서 필립 브레난 에코젠 파워시스템즈 최고경영자와 최대진 두산중공업 사업개발담당 상무가 초임계 이산화탄소 폐열회수 발전설비 기술 협약을 맺었다.

한 교사가 교육 플랫폼 '엔트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제공

네이버, SW 교육 플랫폼 지원

'엔트리' 오픈소스 공개… 쉽게 배울수 있는 콘텐츠 제공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가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엔트리코리아(대표 김지현)를 지원해 교육 플랫폼 '엔트리'를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엔트리는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쉽고 재밌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의 지원으로 엔트리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교육 오픈소스로 확대돼 공공재로서 선생님, 학생, 일반인 누구나가 소프트웨어를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엔트리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구와의 연동뿐만 아니라 PC가 없는 환경에서도 모바일로 자유롭게 창작물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

김지현 네이버 소프트웨어 교육 담당 이사는 "수년간의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활동을 통해 본질적으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기여해야 된다는 고민에 도달했다"면서 "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즐겁게 소프트웨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많은 콘텐츠 생산자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참여하는 등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hm0108@

한은, 기준금리 연 1.50%로 인하

엔화 약세 따른 수출부진·메르스 대응 조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11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현재의 연 1.75% 수준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1.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돌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모두 0.7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두달간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며 동결을 선택했다.

하지만 5월의 일부 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부진한 경기회복세 속에 메르스 충격이 더해지면서 경기 추가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실제 그간 한국경제는 소비를 제외하고 5월 수출액의 경우 10.9% 줄었으며 산업생산도 3월(-0.5%)과 4월(-0.3%)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올 1분기 한국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또한 0.8%로 일본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다.

더욱이 최근 급격히 확산된 메르스로 인해 유통과 소비업종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태다.

물론 메르스로 인한 경기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여행·관광업계가 타격을 받는 등 소비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공언함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인하로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권의 예금·대출 금리 인하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11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현재 연 1.75% 수준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1.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알뜰부부 여름 장 보기 원칙!

첫째,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은 국내산 메밀이다.

둘째, 구수한 강원도 메밀요리 맛 그대로다.

셋째, 정직하게 만들어 믿을 수 있다.

www.bongpyung.com

메밀꽃필무렵 봉평촌 ▼ 검색

최양락, 팽현숙 부부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메밀로 만든 요리는 진짜 메밀맛이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이
2014년 대한민국 식품대전 소비자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은 우리 몸에 좋은 국내산 메밀만을 고집하여 맛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한 제품입니다.

[주]봉평농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진등길 18-10 Tel 033.333.8942

이주열 "수출부진·메르스로 성장 하방 위험 "

회복세 보였지만 위축 선제적 대응 바람직해

한국은행의 나침반이 경제성장을 향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보다 메르스와 수출 부진 대응이라는 실물경기 회복방안으로 주사위가 던져진 것이다.

11일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출부진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영향 등으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도 메르스 사태로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한은, 10개월 새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6년래 최저 수준

한국은행은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해 현재 연 1.75% 수준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1.50%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 낮다.

이날 결정에는 1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으며 금통위원들은 ▲구조개혁 노력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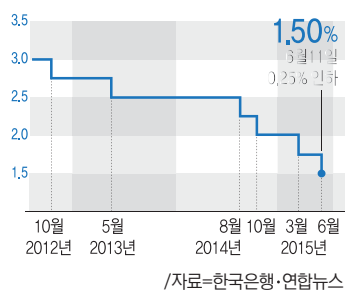
경제회복과 유동성 확보에 무게가 더 실린 것이다.

앞서 한은은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모두 0.7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두달간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며 동결을 선택했다.

하지만 5월의 일부 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부진한 경기회복세 속에 메르스 충격이 더해지면서 경기 추가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 수출부진·메르스 돌발 변수, 인하 이끌어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과 메르스라는 돌발 변수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실제 그간 한국경제는 소비를 제외하고 5월 수출액의 경우 10.9% 줄었으며 산업생산도 3월(-0.5%)과 4월(-0.3%)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올 1분기 한국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또한 0.8%로 일본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한국은행·연합뉴스

더욱이 최근 급격히 확산된 메르스로 인해 유통과 소비업종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태다.

물론 메르스로 경기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여행·관광업계가 타격을 받는 등 소비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공언함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 역시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실물경제 활동에 미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메르스만 보고 금리인하를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업 등 경기회복세를 이끌어 왔던 소비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커졌다"면서 "(향후 금리 정책은)앞으로의 상황에 달려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메르스가 미칠 영향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다각도로 보고 있다"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연금정보' 한번에 조회

금융당국, 통합연금포털 구축

금융당국이 고객 스스로 연금정보를 확인하고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서비스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중회의실에서 '통합연금포털 시연회'를 열고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연금포털은 본인이 가입한 전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사용자는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 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평가액(직전 월말)등 연금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만기까지 계속 납입할 경우 각 연금의 연령(55~99세)별 예시연금액을 표나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다.

연금액을 비교·분석해 필요한 추정납입액을 안내받아 노후 대비 재무설계도 할 수 있다.

최초로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정보를 확인하는 기간이 3일(영업일)소요되지만, 추후 다시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로 인증만 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처음 방문한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보배기자 bobae@

금리 1% 시대… '1100조 돌파' 가계부채 비상

초저금리, 대출·주택구매 희망자에겐 '호재' 가계빚 증가는 금융시장 잠재적 위험 키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1.50%로 내리면서 가계부채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권의 예금·대출 금리 인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초저금리는 돈을 빌리거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가계빚이 쌓일 수록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커진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실제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 발생시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이다.

◆ '가계부채' 문제 발목… "1100조원 돌파"

한은이 발표한 '2015년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76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전보다 10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 3월말 기준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과 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의 대출까지 합친 가계신용은 1099조3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경우 향후 1년간 가계대출이 0.24% 증가한다는 거시계량모형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미 저금리와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급증세를 보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한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가계부채와 경기회복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메르스 여파와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 우려도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보다 유동성을 선택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여건이 거시경제 리스크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단계가 왔다"고 강조했다.

◆ 경기부양용 '추경카드' 나올까?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지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이후 정부의 추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메르스 확산 이전에도 10조원 안팎의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성장률 손실분 3조원 가량을 감안하면 추경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경을 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경 가능성은 열려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금리에 서민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 TF 팀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만 그 사이에서 이익을 과도하게 얻고 있다"며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아란기자

LH vs 포스코, 청라지구 소송전 막바지

19일 손해배상·토지대금 반환 청구결과 발표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 좌초될 위기에 빠진 청라국제도시 사업을 두고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출자사인 건설사의 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청라국제업무타운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3047억원 규모의 민사소송 결과가 19일 발표된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을 포함해 롯데건설과 두산건설, KCC건설, 한라,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쌍용건설, 삼환기업 등 10개 건설사가 외국계 펀드인 마운틴블루와 함께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다.

이번 소송 결과에는 최근 LH가 이들 출자사들에게 맞소송(반소)한 1935억원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용도변경 건이었다. 건설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무리하게 기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10개의 출자사 중에서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중이었고, 삼환기업은 법정관리가 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전체 면적의 30%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꾸고 호텔과 카지노·백화점 대신 비즈니스호텔과 대형마트·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해달라고 LH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자본금 축소와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 지식산업센터 허용 등을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의 용도변경은 힘들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지난 2013년 4월에는 청라국제업무타운과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총 6171억원의 토지대금 중 네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할 중도금 1630억원을 연체했고, 사업협약이행보증금 1860억원도 내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청라금융단지 조감도.

문제는 이번 소송에 걸린 손해배상액이 거액이라 패소하는 쪽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LH가 패소할 경우 출자사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토지대금 1781억원과 사업무산 등으로 인해 손해금액 1266억원 등 총 3047억원에 달한다.

LH의 지난 말 기준 부채는 137조원이 넘는다. 자본 대비 부채를 나타내는 부채율도 408%에 달한다. 최근 몇 년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본보다 부채가 4배 이상 많은 것이다. 여기에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3047억원의 부채가 추가된다.

출자사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주택경기 호조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은 지난 1분기 1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 7월과 12월에 각각 1000억원의 만기도래회사채를 갚아야하는 상황이다.

출자사 중 하나인 쌍용건설도 올 3월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원활한 영업활동을 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

출자사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LH는 원론만 고집했다"며 "LH는 사업무산에 대한 책임으로 출자사에게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LH 관계자는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이행보증금 3099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최근에 낸 소송은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4일 한양건설, 부동산보험업인 미국의 타워에스크로우, 코리아신탁 등으로 구성된 한양컨소시엄을 청라국제금융단지의 사업 후보자로 선정했다. 한양컨소시엄은 총 사업비 1조2000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사업 대상지 16만㎡(4만8000여평)에 세계적 수준의 국제업무·금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조만간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에 걸려있는 게시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5%로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금금리 하락으로 월세전환이 가속화되고 전세값 상승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뉴시스

국내건설사, 해외 수주 700억 달러 돌파

50년 만의 쾌거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한 지 50년 만에 누적 수주액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013년 11월 6000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1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10일 현재 신고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총 6995억4032만 달러다.

여기에 지난 4일 삼성물산이 호주에서 수주한 시드니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 1단계 도로 공사(6억9407만 달러)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누적 합계는 7002억3439만 달러에 달한다.

해외건설 수주액 7000억 달러 돌파는 1965년 국내 건설사가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한지 50년 만의 성적이다.

해외 진출의 서막을 연 곳은 현대건설이다. 1965년 9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끈 현대건설은 태국 남부의 파타니와 나라티왓을 연결하는 길이 98km의 고속도로를 따냈다. 1966년 1월 착공에 들어가 2년여 만인 1968년 3월 준공했다. 당시 수주액은 522만 달러였다.

이후 1980년대부터 중동 붐을 타고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됐다. 동아건설이 1984년 착공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당시 단일 공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주목받기도 했다.

이에 1970년 1억 달러에 그쳤던 누적 수주액은 1980년 300억 달러, 1993년 1000억 달러, 2010년 4000억 달러, 2013년에는 6000억 달러를 차례로 돌파했다. 또 1970년 4799만 달러에 머물렀던 연간 수주액은 2010년 역대 최대인 716억 달러를 기록할 만큼 규모가 확대됐다.

7000억 달러를 돌파하기까지 수주 물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중동이다. 중동 수주액은 전체의 55.5%인 3884억7009만 달러에 달했다. 이어 아시아가 2124억5845만 달러로(30.3%)로 2위를 차지했다.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건설의 날' 행사를 해외건설 수주 50주년과 누적 수주액 7000억 달러 돌파 기념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광교신도시 아파트 쏟아진다

아이파크 vs 더샵 vs e편한세상 '삼파전'

경기도 광교신도시에서 브랜드 아파트 분양 삼파전이 펼쳐진다. 모두 선호도 높은 대형브랜드 아파트인데다, 호수생활권과 테라스하우스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초여름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이 광교신도시에서 2778가구의 아파트를 쏟아낸다.

이 중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은 광교에서도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호수공원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거복합단지를 공급한다. 대림산업은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역(가칭) 인근에 테라스하우스를 선보인다.

현대산업개발은 C3블록에서 지하 3층, 지상 26~49층, 7개동, 전체 1240가구의 '광교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84~90㎡ 아파트 958가구와 84㎡ 오피스텔 282실로 이뤄졌다. 광교호수공원이 바로 앞이라 일부 세대에서 조망도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C4블록에서 '광교 더샵'을 공급한다. 지하 3층, 지상 35~49층, 7개동, 전체 962가구 규모다. 84~91㎡ 아파트 686가구와 83㎡ 오피스텔 276실로 구성된다. '광교 아이파크'와 마찬가지로 호수공원이 인접해 산책·운동 등을 즐길 수 있다.

대림산업은 B3·4블록에 테라스하우스인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 576가구를 내놓는다. 지하 1층, 지상 4층, 84~273㎡로 설계됐다. 최상층(4층) 세대에는 다락방과 연계한 옥상 테라스가, 1층 일부 세대에는 테라스와 주거공간으로 이용 가능한 지하층이 제공된다.

광교신도시는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윤곽을 잡아가는 것은 물론, 생활인프라 조성도 마무리가 돼가면서 집값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광교신도시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1646만원으로 2년 전 1424만원에 비해 15.59% 상승했다. 판교(8.02%), 평촌(7.87%), 분당(5.64%), 동탄(2.11%) 등 수도권 남부권에 조성된 1·2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기록이다.

분양권에 붙은 웃돈도 수천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원천호수공원 D3블록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광교'는 4000만~5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앞서 2013년 울트라건설이 A-31블록에서 선보인 '울트라참누리'도 비슷한 수준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이후 광교신도시에서 분양된 민간 분양아파트는 3곳에 불과하다"며 "신규 공급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이달에만 대형브랜드 단지가 3개가 한 번에 쏟아져 높은 청약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GS리테일, 무더위·메르스 수혜로 주가 '훨훨'

편의점 매출 증가… 2분기도 청신호
증권사 8곳, 목표주가 잇따라 상향

'GS리테일'이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메르스 수혜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면서 "향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점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의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목표주가를 올린 증권사는 모두 8곳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종전 4만5000원에서 5만1000원으로 13% 상향 조정했고 삼성증권은 3만1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올려잡았다. 현대증권(4만5000원→5만원), 유안타증권(2만8000원→4만2000원), KB투자증권(3만8000원→4만3000원) 등도 목표가를 잇따라 올렸다.

이들은 "점포수 증가와 담배가격 인상, 자체 브랜드상품(PB)의 매출 증가가 매출액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간편식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절적 성수기와 겹치면서 편의점 부문 실적 개선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 편의점 방문객수는 더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판매품목 역시 음료 중심의 성장으로 편의점 성수기의 전형적인 매출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여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GS리테일의 편의점 부문 2분기 매출 증가율로 23%를 추정한다"면서 "4월 편의점 업계 매출은 28% 늘어났고, 5월과 6월은 오히려 그보다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편의점 GS25와 GS수퍼마켓를 운영하고 있는 'GS리테일'이 자사의 회원 카드인 팝카드를 업그레이드한 '모바일팝'을 새롭게 선보였다. /GS리테일 제공

그는 또 슈퍼마켓 부문에 대해 "4~5월 기존점 매출은 1분기 대비 호조를 나타냈으며 6월은 메르스 확산 우려로 대형마트 방문객이 줄고 그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슈퍼마켓 매출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홍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1분기에 편의점 266개점을 신규 오픈하며 연간 목표 달성 가능성을 충족한 동시에 출점 여력 부재 우려를 불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마진 상품 판매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주가 전망도 긍정적이다.

매출 개선과 높은 현금 창출력에 따른 양호한 주가 흐름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GS리테일의 주가는 지난해 7월 18일 기록한 2만300원을 중단기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1일에도 전일대비 4.81% 오른 4만350원에 마감했다.

양지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자의 소량 구매 패턴 확산, 1~2인 가구 증가 등 소비 트렌드 변화로 편의점 유통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우수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GS리테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점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정부의 메르스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난 7일 인천공항 입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줄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화장품·여행株, 그늘 벗어날까?

시가총액 5조 넘게 증발
"메르스로 일시적 충격
싼값 매수… 좋은 전략"

여행·화장품주가 메르스 확산 여파로 맥을 못 추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나온 뒤 3주간 증시에서 큰 타격을 받은 여행·레저·화장품 주에서만 시가총액이 5조원 넘게 증발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화장품주의 시가총액은 4조8419억원이나 줄었다.

아모레G는 지난 9일 기준 주가가 16만8500원으로 첫 환자 발생 직전인 지난달 19일(19만8000원)보다 14.9%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하락률(3.5%)의 4.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이 기간 15조7986억원에서 13조4448억원으로 2조3538억원이나 감소했다.

아모레퍼시픽도 최근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1조6953억원 줄고, LG생활건강도 1조4213억원 감소했다. 11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각각 2.31%, 3.20% 하락했다.

여행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메르스 확산으로 여행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여행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투어의 경우 지난 2일 8% 넘게 내린 11만3000원에 거래를 마쳐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11일에도 전일대비 2.45% 하락한 11만9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모두투어의 주가도 전일대비 3.83% 떨어진 3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메르스의 경제 영향은 조기 극복만 한다면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영환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3년 사스 때는 2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급락하기도 했다"면서 "결국 충격의 정도는 메르스의 확산 여부에 달린 만큼 향후 진행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에 쐐기 박을 키(Key)

주주들 입장 속속 밝혀
국민연금 "시간 두고 판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1일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것과 관련, 가처분 소송을 냈고 삼성물산은 즉각 반박했다.

삼성물산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날로 진흙탕 공방을 벌이며 삼성물산 주가를 흔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분에 9.92%로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하나 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물산 지분 0.13%를 보유한 신영자산운용은 이날 합병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남권 신영자산 부사장은 "장기투자자라면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며 "합병안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적은 보유분이지만 자산운용사가 입장을 밝힌 것은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한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 의의를 갖고 있다. 한국투신운용(2.9%)을 비롯한 국내 자산운용사는 삼성물산 주식 중 1% 내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반면 삼성물산 지분 0.35%를 보유한 네덜란드 연기금 (APG) 측은 지난 8일 "불공정한 합병 가격이 조정되지 않으면 합병에 찬성할 수 없다"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비율인 1대 0.35는 공정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비율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지분 2.05%를 보유한 일성신약 윤석근 사장 역시 9일 합병안에 대해 엘리엇의 문제제기에 동감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까지 나섰다. 네이버에 개설된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카페'에는 연이어 자신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주권을 카페에 위임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10일까지 지분 0.43%에 대한 주권 양도 글이 올라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삼성물산 측에 우호주주가 되든 엘리엇 측에 우호주주가 되든 막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1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합병안 주주총회가 다음달 17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궁금증이 풀리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연금 측은 엘리엇이 합병안 반대 촉구 서한을 보낸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대해 필요하다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의사결정 기구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9명으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이번 합병안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결정이 곤란하다고 여기면 심의를 거쳐 열 예정이다. 또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연금 측 관계자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열린다면 "사안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위원회에) 방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전날 KCC에 자사주 매각 소식이 알려지며 7.07%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다.

/이정경기자 jkljkl@

현대차, 美 싱크탱크에 '한국연구센터' 설립

KF·우드로 윌슨센터와 후원 협약 체결
전담 연구인력 참여·다양한 세미나 개최

10일 워싱턴 DC 소재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좌측부터) 제임스 퍼슨(James Person)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연구센터 담당 연구원, 선준영 전 유엔대표부 대사, KF 유현석 이사장, 제인 하먼(Jane Harman) 우드로 윌슨 센터 소장, 에드 로이스(Ed Royce) 미 하원 외교위원장,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이광국 현대차 워싱턴사무소장이 '현대차-KF 한국연구센터'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10일(현지시간)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우드로 윌슨 센터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KF의 자원은 우드로 윌슨센터 안에 한국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취지다.

미국 워싱턴 소재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 위원장, 제인 하먼 우드로 윌슨 센터 소장, 안호영 주미한국대사, 이광국 현대차 워싱턴사무소장, 유현석 KF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측에 따르면 우드로 윌슨 센터는 1968년 미국 연방의회가 설립한 공공정책 연구기관으로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다.

지난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의해 미국 내 5위, 전 세계 10위 싱크탱크로 선정된 바 있다.

우드로 윌슨 센터 이사회는 토마스 나이즈 전 국무부 부장관, 존 케리 국무부 장관, 안 던컨 교육부 장관, 실비아 버웰 보건부 장관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현대차와 KF는 각각 200만 달러와 100만 달러씩 총 300만 달러를 지원해 우드로 윌슨 센터 내에 한국 전문 연구 프로그램을 처음 개설했다.

우드로 윌슨 센터는 이번 후원으로 센터 내의 다양한 부서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관련 주요 현안과 이슈에 관한 정책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한국 전문 연구 프로그램에는 한국 전담 연구 인력이 참여한다.

▲워싱턴 현지의 한국 관련 연례 심포지엄 개최 ▲한국의 학자·전문가 초빙,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 펠로우십 운영 ▲무역, 비즈니스, 정치 등 한-미 관계 연구 회의체 운영 ▲미국 고등학생, 대학생을 위한 한국 근대사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드로 윌슨 센터는 올해 워싱턴과 서울에서 ▲한-미-일 관계·경제, 무역 관련 포럼 ▲한반도 분단 70년사 재조명 세미나 ▲한국사와 현안 연계 정책 포럼 ▲한국 근대사 및 한-미 관계 학술 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현대차 측은 "이번 후원을 통해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현대차·광주시, 수소경제구현 본격화

융합스테이션 구축 MOU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왼쪽),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권문식 현대차 부회장이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운행에 대한 업무 협약을 기념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은 광주광역시와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융합스테이션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권문식 현대차 부회장, 오영 광주그린카진흥원장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융합스테이션 구축 및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수소연료전지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유 센터장은 "융합스테이션 구축사업과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운행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수소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성과를 이뤄 모범적 사례가 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시장은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운행을 원만히 진행해 성능이나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또한 의미 있고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안전까지 고려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융합스테이션 구축과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운행은 수소연료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융합스테이션 플랫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 운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광주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광주그린카진흥원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광주그린카진흥원의 진곡수소충전소에서 융합스테이션 구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용기기자 yonggi@

BMW, 독일서 '뉴 7시리즈' 공개

10월 전세계 시장 출시
경량화·안전성 강화

BMW는 10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본사에서 열린 신차발표회에서 7시리즈 6세대가 오는 10월 전세계 시장에 출시된다고 밝혔다.

11일 BMW에 따르면 신형 7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제중 감량'이다.

가볍지만 강철보다 단단한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이 탑승석 등 차량 상부에 적용됐다.

CFRP와 초고장력 강철, 알루미늄으로 된 특수차체구조(카본 코어) 기술에 기반해 기존 모델에 비해 최대 130kg이 감량됐다.

뉴 7시리즈 모델들에는 '트윈파워 터버' 기술이 적용된 8기통 4.4리터 엔진이나 6기통 직렬 엔진이 장착됐다.

750i xDrive 가솔린 모델의 경우 최고출력 450마력에 최대토크 66.3kg·m의 성능을 갖췄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4.4초다.

평균연비는 12.0~12.3km/ℓ 수준이다.

7시리즈 신차는 주행성능과 승차감도 향상됐다고 BMW는 전했다.

노면 상태에 맞춰 차체가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하는 '에어 서스펜션'와 '전자식 댐퍼'를 기본사양 품목에 포함시켰다.

안전 성능도 강화됐다. 차량 내부에는 정면과 측면 에어백이 탑재됐다. 모든 좌석에는 머리 보호 에어백이 장착됐다.

이밖에 뉴 7시리즈 신차에는 손동작으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어하는 '제스처 컨트롤', 무선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 홀더, 마사지 기능이 내장된 전동조절식 시트, 등의 사양을 갖췄다.

박혜영 BMW코리아 이사는 "한국에도 7시리즈 신차가 10월 중 출시될 예정"이라며 "한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7시리즈 소비국이라는 점을 BMW 본사에서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한국지엠, 디자인본부 스튜어트 노리스 전무 선임

한국지엠은 내달 1일부로 스튜어트 노리스(사진) 선행 디자인 책임자를 디자인본부 전무로 승진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리스 전무는 2012년 8월, 한국지엠의 선행 디자인 책임자로 임명돼 미래 제품과 기술에 대한 디자인을 담당했다.

2004년 지엠에 합류한 노리스 전무는 이후 지엠의 글로벌 디자인 부문에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다. 노리스 전무는 같은 해 북미지역에서 중형 트럭, 허머 제품, 허머 HX 콘셉트카의 실내 디자인을 담당했다. 이후 2007년부터 쉐보레 전기차 볼트와 캐딜락 '큐' 시스템을 비롯해 뷰익, GMC, 오펠 브랜드의 실내 구성품과 편의사양 디자인을 담당했다. /정용기기자

"매각·합병 꼼수로 총수일가 지분율 낮춰"

대기업 계열 47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빠져… 공정위 법망 구멍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지분조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본격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에 규제를 피해갈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지분을 낮춘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규제 취지와 달리 대기업들이 공정위 법망을 피해가면서 법의 헛점도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를 보면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지분을 팔아서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갔다. 지난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은 오너 일가(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어설 경우 일감몰아주기 등을 하게 되면 오너 일가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2014년 2월 시행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이후 유예기간 동안에 도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계속해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공정위는 올해 2월 기준으로 금지규정 대상은 모두 186개사라고 밝혔다. 수치만 보면 지난해 4월 187곳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는 숫자다.

그러나 세부 내역을 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13곳, 추가된 기업 12곳 등 모두 25개사에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됐다.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제외됐다.

이밖에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OCI의 넥슬론㈜,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툰부리가 빠졌다.

신학용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그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한 새 공정거래법을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한진그룹과 현대그룹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전격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현대글로비스 아산제2KD센터 조감도. /현대글로비스 제공

현대글로비스, 아산 제2KD공장 착공

기아차 멕시코 공장 부품 공급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 반조립부품(KD)을 국내에서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에 공급하기 위해 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에 따르면 물류유통센터인 아산 제2KD센터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아산 제2테크노밸리에 착공됐다.

아산 제2KD센터는 대지면적 4만2900㎡에 건축면적 2만720㎡다.

이곳에 자동차 반조립 부품 포장장과 사무동 등이 들어서며 올해 말 준공된다.

현대글로비스는 현재 충남 아산 제1KD센터와 울산, 전북 전주에 각각 운영 중인 KD센터에 이어 국내에 총 4개의 KD센터를 갖추게 된다.

KD사업은 국내외에서 조달한 완성차 생산 부품을 KD센터에서 포장하고 수출해 해외 현지 완성차 공장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체코, 슬로바키아 등 전 세계 8개국에 있는 현대·기아차 10개 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제2KD센터는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현대글로비스 아산 제1KD센터와 거리가 20㎞로 가깝다.

또 주변의 부품 제조사로부터 KD부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물류·유통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현대글로비스는 예상했다.

제2KD센터가 완공되면 현대글로비스는 부품 협력사에서 조달한 700여개 KD부품을 기아차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 공장에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내년 상반기부터 몬테레이 공장에서 K3(포르테) 등의 완성차를 연간 30만대 규모로 양산한다. /정용기기자 yonggi@

벤츠코리아 "고객만족이 최종 지향점"

마이서비스 전국확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11일 수원시 기흥구에 있는 수원서비스센터에서 '마이서비스' 미디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피에르 임마누엘 샤티에 다임러 AG 해외 애프터 세일즈 총괄이 방한해 마이서비스의 개발 배경과 벤츠가 제안하는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설명했다.

샤티에 총괄은 "한국은 벤츠에서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주요 시장이다"며 "마이서비스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객의 만족'은 벤츠의 핵심 아젠다로 자사가 추구하는 최종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규상 서비스 총괄 부사장과 김지섭 마케팅 총괄 상무는 마이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을 전했다.

사측에 따르면 마이서비스는 고객의 성향에 맞춰 ▲이코노믹 옵션 ▲라운지 옵션 ▲스피드 옵션 ▲픽업&딜리버리 옵션 4가지로 구성됐다.

이코노믹 옵션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전 예약 후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방문하는 고객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라운지 옵션은 안마의자가 구비된 개인공간과 PC를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음료와 스낵도 무료다. 사전에 예약하면 세차도 무료다.

스피드옵션은 시간이 빠듯한 고객들을 위해 만들어 졌다. 스피드 옵션 A는 60분, 스피드 옵션 B는 90분 안에 차량 입고부터 출고까지 완료된다.

픽업&딜리버리 옵션은 고객 전용 픽업트럭을 이용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 지역은 편도 3만원·왕복 6만원, 그 외 지역은 편도 5만원·왕복 10만원의 비용이 든다.

조 부사장은 "올해 하반기 마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고객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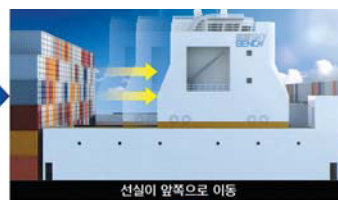
/양소리기자 10sound@

현대重, '움직이는 선실' 개발… 화물적재량 늘려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선실에 레일과 휠을 이용해 '움직이는 선실'을 개발했다. 공간 활용도가 높아져 화물적재량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현대중공업은 노르웨이 선급협회 DNV GL사로부터 움직이는 선실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움직이는 선실은 승무원들의 생활공간인 선실은 선체와 붙어있어 움직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깬 것으로 현재 '스카이벤치'라는 이름으로 특허와 상표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브릿지 형태의 선실은 길이 방향으로 총 13m를 이동할 수 있다. 선실이 이동하며 생긴 선실 하부 공간에는 컨테이너를 추가로 적재할 수 있다. 기존 고정식 선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선실 앞쪽에 컨테이너 적재

선실이 앞쪽으로 이동

컨테이너 적재를 마친 컨테이너선의 모습

선실 뒤쪽에 컨테이너 적재

이 디자인을 1만9000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 크기)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적용할 경우, 450개의 컨테이너를 더 탑재할 수 있게 된다. 선박 침몰 시 부력에 의해 선실이 선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해, 승무원들의 안전성도 높였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 디자인이 적용된 1만9000TEU 컨테이너선이 유럽~아시아 노선을 운항할 경우 연간 약 27억원, 25년(선박의 평균수명) 운항 시 약 670억원의 추가 운임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소리기자

르노삼성, 중기 동반성장 협력펀드 지원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프랑수아 프로보)는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1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민관협력펀드를 결성하고 그 중 93억원을 중소 협력업체에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1년 만에 펀드의 약 94%를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사측에 따르면 동반성장 민관협력펀드는 르노삼성과 중소기업청이 1:1 매칭 그랜트 형식으로 각각 50억원씩, 연간 총 100억원 규모로 3년간 진행한다. /이정필기자 roman@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린다."

지금껏 전 세계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신데렐라!
2015, 신데렐라가 선사하는 마법같은 무대가 펼쳐진다!

브로드웨이 라이선스 신작

토니상 9개 부문, Emmy어워즈 2개부문, 총 30개 부문 노미네이트 및 수상.

'더 뮤지컬' 설문조사 2015년 기대작 1위

2015년 가장 기대되는 신작-라이선스 뮤지컬

더 뮤지컬 2015년 1월호

1위 〈신데렐라〉 19.8%(75명)
2위 〈팬텀〉 17.7%(67명)
3위 〈베어〉 13%(49명)
4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2.4%
5위 〈로빈훗〉 10.1%

올해 처음 소개되는 라이선스 뮤지컬 중 가장 기대를 모은 작품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신데렐라〉다. 마법같은 무대와 의상 체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동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익숙한 원작 자체에 대한 호감도 한 몫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신데렐라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신데렐라〉에 표를 던진 응답자들의 제1의 관심사 였다.

2015, 마법같은 무대를 선사해 줄 신데렐라와 왕자님
그리고 보석처럼 빛나는 앙상블을 찾습니다.

뮤지컬 [신데렐라] 오디션 개최

◈ **공연일시** 2015년 9월 12일 ~ 2015년 11월 8일 ◈ **오디션 일정** 2015년 6월 29일 ~ 2015년 6월 30일

* 자세한 사항은 ㈜엠뮤지컬아트 홈페이지(www.mmusical.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훈 SK하이닉스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이 10일 중국 심천에서 열린 '2015 SK하이닉스 모바일 솔루션 데이'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 中 모바일시장 위상 강화

'모바일 솔루션 데이'

SK하이닉스가 10일 중국 심천에서 주요 모바일 업체들을 초청해 '2015 SK하이닉스 모바일 솔루션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

'미래 모바일 생태계를 함께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작년에 이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이 참석해 SK하이닉스의 모바일 D램과 차세대 낸드플래시 솔루션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시장 내 선두 업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에는 SK하이닉스의 중국 주요 고객인 화웨이, 레노버, 샤오미 등과 중국 최대 이동통신 업체인 차이나모바일, 칩셋 업체인 퀄컴, 미디어텍 등 모바일 산업 핵심 업체들이 참가해 SK하이닉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기조연설에서 차이나모바일은 중국 모바일 4G 발전 현황과 변화 방향을, 퀄컴과 미디어텍은 중국 4G 시장 대응을 위한 SoC(System on Chip) 개발 전략·SK하이닉스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국 모바일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8기가비트 LPDDR4 D램, 36단 3D 낸드플래시, 고성능 UFS 등 다양한 모바일 제품으로 고객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성능과 중저가 제품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등 중국시장에 최적화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계획이다.

진정훈 SK하이닉스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SK하이닉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고객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최적의 모바일 솔루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

LG전자, 태양광 모듈 기술력 입증

'네온2' 모듈로 태양광부문 본상 수상

LG전자가 세계 최대 태양에너지 산업 전문 전시회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10~12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인터솔라 2015'에서 태양광 신제품 '네온2(Neon2)'로 '인터솔라 어워드(Intersolar Award)' 태양광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태양광 모듈 제품으로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태양광 모듈 본상 2회 수상은 아시아 업체로는 유일하다. 인터솔라 어워드는 인터솔라 EU가 주관하며 태양에너지 학계·업계·미디어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네온2는 6인치대(15.67㎝) N타입 웨이퍼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19.5%의 모듈 효율과 320W의 출력을 구현한 초고효율 프리미엄 제품이다. 기존 제품은 셀 위에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3개지만 네온2는 이를 12개로 늘려 모듈 출력을 높이고 전기적 손실을 최소화했다.

인터솔라 2015 어워드 본상 수상 후 최영호 LG전자 솔라연구소장 상무(좌측), EU Solar Sales Director 마이클 하레(Michael Harre)가 모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는 2013년 모노엑스네온(Mono XTM NeON)으로 아시아 태양광 모듈 업체 최초로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수상했다. 태양광 모듈로 본상을 2회 획득한 업체는 아시아에서 LG전자가 유일하다.

이충호 LG전자 솔라BD담당(전무)은 "이번 수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 받았다"며 "초고효율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ysw@

SKT, 4년 연속 SCIA 수상

네트워크 솔루션 상용화 우수한 기술력 높이 평가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10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스몰 셀 인더스트리 어워드(SCIA)'에서 '최우수 상용화(도심지역) 부문상'과 '심사위원상'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SCIA는 2009년부터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스몰 셀 포럼'에서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스몰 셀 포럼에는 AT&T, 보다폰, NTT도코모 등 세계 유수의 이동통신사 60여곳과 삼성전자, 화웨이, 에릭슨 등 통신장비 제조업체 90여 곳이 가입돼 있다.

스몰셀은 비교적 좁은 커버리지에서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장비를 통칭하는 단어로 전파가 닿기 힘든 실내나 지하 등의 공간에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된다.

SK텔레콤은 동일 시상식에서 소형 기지국 상용화와 관련해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혁신적인 상용화 기술 부문'에서 수상했다. 시상식 카테고리가 변경된 올해도 상용화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 받아 4년 연속 상을 받게 됐다.

10일 런던에서 열린 '스몰 셀 인더스트리 어워드'에서 김창영 SK텔레콤 매니저(사진 왼쪽)가 시상자인 캐롤라인 가브리엘 리싱크 테크놀로지 리서치사 디렉터로부터 '최우수 상용화(도심지역) 부문상'을 수여 받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올해는 개별 기술을 이유로 수상한 것이 아닌 '다양한 네트워크 솔루션들을 도심에서 상용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SK텔레콤의 스몰셀 관련 기술력과 상용화·운영 노하우에 대해 관련 스몰셀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와 함께 '심사위원상'을 수여하며 SK텔레콤이 해당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LG 'G4' 카메라, 140㎞ 강속구 순간 포착

LG전자는 'G4' 카메라의 핵심기능인 '전문가모드(1/6000초 셔터스피드)'로 시속 140㎞의 강속구를 순간 포착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G4 카메라는 류제국 LG트윈스 선발투수가 던진 시속 140㎞ 강속구의 실밥까지 선명하게 잡아냈다.

셔터스피드는 셔터가 열리고 닫히기까지의 시간 길이를 말한다. 이를 빠르게 설정할수록 움직이는 피사체도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

G4 카메라에 탑재된 1/6000초 셔터스피드는 보급형 DSLR 카메라(80만~100만원대)에도 잘 탑재되지 않는 고급기능이다.

1/6000초 셔터스피드는 약 0.000167초 만에 피사체를 빠르게 촬영할 수 있다. 이는 역동적으로 뛰는 운동선수, 달리는 자동차 등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 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류제국 LG트윈스 선발투수가 불펜에서 140㎞ 강속구를 역투하고 있다. LG전자는 G4 카메라 전문가모드로 이 강속구를 선명하게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LG전자 제공

저속 셔터스피드(최대 30초) 기능도 탑재돼 피사체의 궤적(잔상)을 촬영할 수 있다.

이철훈 LG전자 MC사업본부 MC마케팅커뮤니케이션FD 상무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 'G4' 카메라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카메라와 화질로 소비자의 '보는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G시리즈의 진정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효성, ICT 접목 '스마트공장'으로 협력사 지원

효성은 협력사의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를 추진해 지원 규모를 올해 3배 이상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효성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스마트공장 전진대회'에 참가해 협력사 스마트공장 지원 규모를 지난해 5개에서 올해 1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 공장은 생산효율과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 생산 공정, 판매 등의 과정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공장이다.

효성중공업의 변압기·차단기·전동기 등은 부품이 크거나 복잡해 협력사가 품질검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효성은 지난해부터 ICT 기술이 탑재된 무선전자계측 장비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협력사에 지원했다.

무선전자계측 장비는 기존 장비에 비해 정밀성, 휴대성, 안정성이 좋다고 효성은 설명했다.

검사 결과의 분석·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조현준 효성 사장은 "스마트공장뿐만 아니라 효성의 전 사업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을 더욱 강화해 창조경제 생태계가 활성화 되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창업 열기… 메르스도 막지 못했다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개막

양재 aT센터 7000여명 참관
'안전한 위생 박람회' 강조
무료 창업 교육 등 진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제 34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11일 개막됐다.

이번 박람회는 침체된 외식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열렸지만 행사를 앞두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진 환자가 증가하면서 예비창업자들의 참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메르스 예방을 위해 행사장 입구에 열감지기 카메라와 손소독제, 마스크가 비치되는 등 '안전·위생 박람회'가 강조되며 이날에만 7000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성공리에 개막했다.

메르스의 불안감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34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에 참여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박람회가 열리는 13일까지 2만3000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협회측은 전망했다.

박람회에는 최근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사과나무(커피베이)·대대에프씨(바보스)·맥스원이링크(셀렉토커피)·웰빙을만드는사람들(뽕뜨락쌀피자)·이루에프씨(바른치킨)·비피알(바푸리숯불김밥) 등 8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소자본 창업, 1인가구 창업, 실버 창업 등 최급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 브랜드들을 180여개 부스를 통해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명 전문가가가 강연하는 다양한 주제의 무료 창업 교육도 열린다. 지난달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외식점포 운영 노하우, 상권분석, 창업 성공과 실패 사례, 아이템 선정, 소셜미디어 마케팅,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등에 관한 알짜배기 특강이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13일까지 열리며 참관 전 홈페이지(http://ikfaexpo.kr/)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다.

임영태 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메르스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외식 경기 살리겠다는 취지와 안전·위생 박람회를 열어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로 박람회를 강행했다"며 "막판 일부 업체의 불참도 있었지만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열기 속에서 성공리에 개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우리 농식품 소비 확대를 촉진하는 상생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을 통해 협회와 농식품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등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다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BGF·캐시넷 주식교환, 홍정국 승계 스토리?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회장 홍석조)과 계열사 BGF캐시넷(대표 구성옥)의 주식교환 예정일이 8월 21일로 정해졌다.

업계는 이를 두고 홍석조 회장의 장남인 홍정국 상무의 BGF리테일 경영승계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정국(34·사진) 상무는 2013년 6월 BGF리테일 경영혁신실 실장으로 입사해 1년 반만인 지난해 12월 33살의 젊은 나이에 상무로 승진했다. 당시 초고속 승진과 함께 홍 상무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설이 불거졌다.

이어 올해 5월 26일 BGF리테일은 BGF캐시넷과의 주식교환을 통해 100%자회사 흡수가 공시됐다. 주식교환비율은 1:0.018595이다. 홍 상무가 얻게 되는 신주는 총 13만3881주 중 1만9747주로 예상된다. 신 주로 인해 홍 상무의 BGF리테일 지분은 기존 0.20%에서 0.08%포인트 늘어난 0.28%다.

홍 상무는 2009년 12월 BGF캐시넷의 설립 시 차남 홍정혁씨와 함께 각각 5억3100만원을 투자했다. 현재 BGF리테일의 주가는 11일 종가 기준 14만7500원으로 홍 상무가 투자한 5억3100만원의 주식 가치는 약 29억원이다.

BGF캐시넷의 최대 주주인 BGF리테일(41.94%)은 자사주 9만6694주를 받아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때문에 홍상무가 가지게 될 BGF지분은 늘어난 셈이다. 이번 BGF리테일과 BGF캐시넷의 주식 교환으로 홍석조 회장의 차남 홍정혁씨도 BGF리테일의 지분 0.08%를 얻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홍정국 상무가 단순히 현금가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주식을 현금화할 가능성은 없다"며 "아직 젊은 나이지만 상무까지 승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분을 확보해 가는 전형적인 경영권 승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BGF리테일 측은 근거없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식교환은 그간 논란이 됐던 BGF리테일의 BGF캐시넷 '일감몰아주기' 의혹 해소와 경영효율화를 위함이지 홍 회장의 주식교환을 통한 차익 실현이나 경영권 승계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BGF캐시넷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때문에 BGF리테일의 타격이 크고 경영에도 차질이 있어 단순 효율화 시킨 것 뿐이다. 또 홍 상무가 추가로 확보한 지분은 고작 0.08%로 승계작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작은 수치"라고 말했다. BGF리테일이 자사주를 받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회사 지분인데 굳이 형태만 바꿔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번 주식교환으로 홍 회장 일가는 BGF캐시넷에 투자한 15억6200만원을 4년 반 만에 약 85억원 가치의 주식으로 돌려받게 됐다. /김성현기자 minus@

농협, 메르스 예방 청결환경 조성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 조영조)이 메르스 예방을 위해 쇼핑카트 소독과 손청결제 비치 등의 예방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쇼핑카트 보관소에 배치된 직원들은 고객들이 쇼핑카트를 사용하기 전 소독을 실시한다. /농협유통 제공

CJ오쇼핑, 뽀로로파크 온라인 총판권 계약

CJ오쇼핑(대표 변동식)은 11일 어린이 실내 테마파크인 뽀로로파크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뽀로로파크 입장권의 온라인 판매 사업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CJ오쇼핑은 이번 MOU를 통해 7월부터 TV홈쇼핑, CJ몰 등 CJ오쇼핑의 유통 채널을 비롯해 국내 주요 종합몰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국내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는 뽀로로파크 입장권 판매 사업을 대행한다.

뽀로로파크는 한국의 토종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를 활용한 어린이 실내 테마파크로, 연간 방문객은 총 140만 명에 달한다.

2011년 경기도 동탄에 처음 오픈한 이래 꾸준히 확대되면서 현재는 잠실롯데월드, 일산킨텍스, 디큐브시티 등 총 여덟 군데에 위치해있다. 뽀로로파크에서는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친구들'의 배경을 테마로 한 각종 놀이 시설과 인기 캐릭터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

CJ오쇼핑 e사업본부 윤병준 부사장은 "국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매년 성장하는 만큼 뽀로로파크 온라인 총판 확보를 통한 서비스 사업 부문의 다각화와 볼륨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AK플라자, 신규 브랜드 11개 공개

AK플라자(대표 서광준)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구로본점·수원점·분당점·평택점·원주점에서 '믹샵(MIXOP)'과 'AK X SFCS' 등 신규브랜드 11개를 선보이는 팝업스토어(임시매장) '팝 인 AK'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믹샵(MIXOP)은 장윤주와 한혜진이 속한 모델에이전시인 '에스팀 모델'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며 신진 디자이너들의 상품이 공개될 예정이다.

AK X SFCS는 AK플라자와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SFCS)가 합작한 편집매장이다.

남성복 디자이너의 상품이 대부분이며 안티메터·조드·슬레이 등 5개 브랜드가 있다.

/김성현기자 minus@

"씨푸드 퐁듀 이제 피자로 즐기세요" 퓨도미노피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신제품 '씨푸드 퐁듀 피자'를 선보이고 있다. '씨푸드 퐁듀 피자'는 체다 치즈로 만든 퐁듀 치즈소스의 진하고 풍부한 맛에 홍게살, 새우, 통관자 등 신선한 씨푸드를 더한 제품이다. /손진영기자 son@

외식업 '메르스 직격탄'

단체손님 줄며 매출 뚝 이달 첫주 36%나 줄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으로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으로 외식업계 직격탄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음식점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고 외식업체 평균 매출액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첫 주 음식점 카드 사용액은 5월 1·2주 대비 12.3% 급감했다. 외식산업협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외식업계의 평균 매출액은 36%나 줄었다.

계절밥상·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은 지난주 매출이 4~5% 하락했다. 이 가운데 메르스 진원지로 꼽히는 평택지역에서의 매출 감소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는 메르스가 한정적인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전국에 퍼질 경우 매출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손님들이 안심하고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 비치, 조리마스크 착용, 열체크도 등 메르스를 대비해 위생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랜드그룹의 한식 뷔페 브랜드인 자연별곡의 지난주 매출도 3~4%로 하락했다. 점포별로 살펴보면 메르스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수원·평택 등 10%, 서울 명동은 4% 줄었다.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도 메르스 사태를 체감하고 있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가족 단위, 회식 손님들의 발길이 줄고있다"며 "불황에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까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외식업계는 자체적으로 비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비비큐(BBQ)는 전 가맹점에 공유해 주방과 카운터에 손세정제를 비치해 매장 내외부를 출입할 경우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 사원은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휴대용 손 세정제를 소지하도록 했다.

맥도날드는 고객 응대 직원을 포함한 매장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직원과 고객들을 위한 손세정제도 매장에 추가로 비치하고 직원 출근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롯데리아도 메르스 지침에 따라 매장마다 손살균 기기와 손세정제를 배치하는 등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여름옷 중성세제로 세탁하세요"

최근 복합섬유를 활용한 기능성 의류가 대중화되면서 옷감의 변형이나 손상을 우려해 자가 세탁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혼방률이 높은 의류나 실크블라우스, 와이셔츠 등 고급의류의 여름철 세탁은 땀이나 체취로 인한 수용성 오염 제거가 대부분이어서 드라이크리닝보다는 중성세제를 이용한 가벼운 물세탁이 좋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중성세제는 비즈니스 캐주얼·교복·고급 면바지 등 매번 드라이크리닝을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의류도 집에서도 안전하게 세탁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패션 트렌드와 미세한 섬유구조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중성세제의 장점을 연결시켜 업계는 옷감 별로 맞춤 전용세제를 출시하고 있다.

중성세제 대표 브랜드인 애경 '울샴푸'는 울이라는 소재의 명칭을 브랜드에 최초로 사용, 동물성 섬유 소재 의류의 변형을 방지하는 고유 기능을 처음 알린 제품이다.

이후 애경은 2008년 아웃도어 의류 전용세제 '울샴푸 아웃도어'에 이어 최근에는 면 의류 전용 중성세제 '울샴푸 코튼앤'을 선보였다. 울샴푸 코튼앤은 티셔츠나 남방 등 면 소재의 여름철 의류 세탁용으로 적합하다.

LG생활건강의 '테크 아웃도어', CJ라이온의 '비트 아웃도어나 노워시' 등의 제품도 아웃도어 의류 전용세제로 출시됐다.

/김수정기자 ksj0215@

온라인 해외 직구 피해 2배 이상 급증

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의류·신발에 대한 해외 구매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다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겪었다.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12년 762건에서 지난해 152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것이라도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때는 반송에 필요한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색상이나 사이즈 등 상품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환불 등의 거래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

LG생건, 교육부와 자유학기제 협약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손잡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가 한 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중간·기말고사를 보는 대신 토론 및 실습수업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과 진로교육 등 유연하게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다.

협약을 계기로 교육부는 LG생활건강의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학교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협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매일매일 다른 색깔의 '파이토컬러 주스'

뉴트리라이트, 면역력 높이는 파이토컬러 주스 레시피 공개

때 이른 더위와 메르스 등 바이러스 확산으로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운동과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인들을 겨냥한 갖가지 건강주스가 트렌드를 이루는 가운데 최근에는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를 넣은 쉐이크 음료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실리콘밸리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단백질 파우더를 넣은 쉐이크 음료가 식사 대용으로 인기라고 전한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비타민 세계판매 1위 브랜드 뉴트리라이트는 '파이토 홈카페(www.nutrilite.co.kr/homecafe)'를 통해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 등에 탁월한 '파이토 홈카페' 음료 레시피 20가지를 개발해 공개하고 있다.

'파이토 홈카페' 레시피는 면역력 강화·항노화·항염증 등에 도움을 주는 식물영양소가 풍부한 뉴트리라이트 체중 조절용 건강기능식품 바디키 식사대용 쉐이크, 순식물성단백질 보충제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식이섬유 보충용 제품 화이버 비츠 플러스 식이섬유, 뉴트리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 등 식물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 매칭해 영양 균형과 포만감을 높이며 '맛·간편함·건강' 3박자를 갖추고 있다.

◇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꿈꾸는 동안주스'

'꿈꾸는 동안주스'는 건강 유지에 핵심인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된 '바디키'와 '뉴트리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로 만든 주스다. 블루베리를 물에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블렌더에 모든 재료들을 넣고 잘 섞이도록 갈아준다.

<재료: 바디키 식사대용 쉐이크 믹스 베리향 2포, 뉴트리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 1포, 라임트리 복분자1T, 노브스갈라 데일리 너츠 1봉지(25g), 블루베리

160g, 이스프링 물 300ml(약 1과 1/2컵), 생 레몬즙 2T>

◇ 탄력 있는 바디에 도움을 주는 '연두부 쉐이크'

'연두부 쉐이크'는 고소한 연두부에 식이섬유가 많은 바나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을 믹스해 만든 쉐이크 음료다.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 음료로서 단백질음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연두부를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고 바나나의 껍질을 제거해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재료가 준비되면 모든 재료를 넣고 잘 갈아주면 고단백의 '연두부 쉐이크'가 완성된다.

<재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3T, 뉴트리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 1포, 연두부 100g(약 2/3컵), 바나나 中 1개, 두유 300ml(약 1과 1/2컵)>

/정은미기자 21cindiun@

트루워크제로 Ⅱ WTIP 메쉬 슈즈(왼쪽), XCS 얼반 기어 샌들(가운데), 베넷 레인 3 베네시안 로퍼(오른쪽)

락포트, 최대 50% 시즌오프

다양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6월을 맞아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슈즈 브랜드 락포트가 여름 시즌 오프 세일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전국 락포트 매장(일부 매장·아울렛 제외)에서 진행되며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든 퍼프 T-스트랩 샌들(사진)'은 세련된 디테일의 음각 문양과 은은한 컬러감으로 여성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웨지힐이다. 아디프린&아디프린 플러스 기술을 적용해 보행 시 발 앞부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강화했다. 발뒤꿈치의 충격을 흡수해 걸을 때 편안하다. 여성스럽고 세련된 오피스룩에 매치하거나 원피스에도 잘 어울린다.

'베넷 레인 3 베네시안 로퍼'는 부드러운 천연 가죽을 사용해 착화감이 우수하다. EVA(가볍고 충격 흡수가 우수한 친환경 고분자 물질) 소재의 경량 깔창과 아디프린 기능이 적용돼 보행 시 발뒤꿈치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준다. 캐주얼한 룩은 물론 정장이나 치노 팬츠와 매치해 경쾌한 여름 비즈니스 룩으로 연출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푸르밀 '당 없는 플레인 요거트' 출시

푸르밀(대표 남우식)은 '당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은 비피더스 유산균 BB-12 이 100억 이상, 전체 유산균이 1000억 마리 이상 함유돼 있다. 이는 농후발효유 기준치의 대비 약 2.5배에 달한다. 칼슘이 840㎎ 함유된 고칼슘 제품으로 1일 권장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 안전성과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용기 외부에서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창 '윈도우 시스템'으로 디자인됐다.

푸르밀 관계자는 "인위적인 당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웰빙 플레인 요거트이자, 온 가족이 과일이나 견과류, 시리얼과 함께 아침대용식이나 샐러드 드레싱 등으로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400g 대용량으로 출시했다"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유산균이 풍부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푸르밀 '당을첨가하지않은 플레인 요거트'는 할인점 및 슈퍼에서 구입 가능하다. 가격은 할인점 기준 1개 2980원, 2개 4780원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냉면·곰탕 드시고 네팔에 기부하세요"

강강술래, 아름다운커피와 '식탁 위의 나눔' 캠페인

숯불구이 한식전문점 강강술래를 운영하고 있는 전한(대표 최종만·사진)이 네팔 지진피해 복구와 재건사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전한은 10일 오후 강강술래 서초점에서 아름다운커피와 '식탁 위의 나눔' 협약식을 갖고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커피 농부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강강술래 전 매장에서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기부메뉴'로 지정된 물냉면·비빔냉면의 판매액 1%와 한우사골곰탕 선물세트 판매액 중 1000원씩을 모금해 아름다운커피에 기탁할 예정이다. 해당 수익금은 네팔 대지진 최대피해지역인 신두팔촉 커피마을 복구에 사용된다.

또 강강술래 전 매장에는 후원 모금함을 비치해 연말까지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상품판매에도 적극 나서는 등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만 전한 대표는 "네팔의 지진피해에 따른 복구 및 재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착한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강술래는 경기 고양시에 가족단위 중심의 힐링 외식문화공간을 목표로 총 450억원이 투자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개념 외식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중국 텐진시에 첫 매장을 내며 해외진출에도 나섰다. /김보라기자 bora6693@

KRT, 전세기로 떠나는 북해도 여름 여행

여행바보 KRT(대표이사: 장형조, www.krt.co.kr)에서 전세기를 통해 편하게 일본 북해도를 다녀올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

흔히 북해도 하면 겨울 여행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미 일본에서는 여름 여행지로서도 명성이 자자하다.

이러한 입 소문을 타고 국내에서도 여름의 북해도를 즐기기 위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 여름 휴가 시즌마다 북해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매년 항공 좌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KRT에서는 국적기 아시아나 항공으로 오전 출발, 오후 리턴의 100% 출발 확정인 전세기 상품을 미리 준비해 여행객들 편의를 높였다. /복현명기자 hmbok@

최희, CF 촬영장서 상큼한 '라셈드 체조'

'썸남썸녀', '렛미인 5' 등에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 최희가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라셈드(LASEMD)'의 광고 촬영 현장이 11일 공개됐다.

맑고 투명한 피부를 상징하는 듯한 연핑크 계열의 의상을 입은 최희의 상큼 발랄한 모습이 포착된 곳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촬영된 '라셈드' CF 촬영 현장이다.

'라셈드'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 최희는 라셈드 앰플이 칙칙한 여성들의 피부를 ▲맑고 ▲밝고▲생기있게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는 콘셉트로 촬영을 진행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

엔제리너스, 15주년 신제품 6종 출시

엔제리너스커피(대표 노일식)는 15주년을 기념해 '초코 스노우' 3종과 '아이스 디저트' 3종 등 여름 신제품 6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초코 스노우 3종은 달콤한 초콜릿에 바나나가 통째로 들어가 풍미를 더한 바나나 초코 스노우와 화이트 초콜릿에 딸기 과육과 아이스크림을 토핑한 화이트 베리 초코 스노우, 초콜릿과 녹차의 맛이 어우러진 그린티 초코 스노우다.

아이스 디저트는 피치시럽과 망고푸딩젤리, 타피오카펄 토핑의 피치요거트빙, 블루베리와 딸기푸딩젤리, 라즈베리 케이크를 토핑한 베리빙, 바나나와 딸기 리플잼, 브라우니 케이크를 올린 바나나빙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 직접 나서 불안감 해소

양천구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 메르스와 관련한 불안감과 오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권)이 적극적으로 불안감 해소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충종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0일 오후 5시 서승석 목5동장 주최로 목5동 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진행된 통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했다.

양천구 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며 목5동의 메르스 안전대책과 예방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된 이번 통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김충종 교수는 메르스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40여 명의 목5동 지역 통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 김충종 교수는 메르스에 대한 의학적 설명과 예방 수칙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김충종 교수는 이대목동병원의 메르스 확진 및 의심 환자 관리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메르스 불안감과 오해를 해소시켰다. /최치선기자 chisunti@

star bag

내달 28일 단독공연 개최

그래미 어워즈 2관왕을 수상한 밴드 펀(Fun.)의 리드 보컬 **네이트 루스**(Nate Ruess)가 다음달 28일 홍대 예스24 무브홀에서 단독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 첫 솔로 프로젝트 앨범 '그랜드 로맨틱(Grand Romantic)'의 발매를 기념하는 투어의 일환이다.

'터미네이터' 홍보대사 선정

그룹 **비투비**가 영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비투비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의 홍보대로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활약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말에는 정규 1집 음반을 발표하고 가수로도 컴백할 계획이다.

농구선수와 열애설 부인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정아**가 농구선수 정창영과의 열애설을 부인했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1일 한 매체의 열애설 보도에 대해 "정아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정창영과는 친한 사이일 뿐 연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니앨범 '리퀴드' 발매

가수 **장재인**이 11일 3년 만의 미니앨범 '리퀴드(LIQUID)'를 발매했다. 지난 3월 선공개한 '나의 위성'과 타이틀곡 '밥을 먹어요' 등 총 6곡을 담았다. 전곡 기타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프렌치 포크 스타일의 음악이다.

솔로활동 나선 '순이네 담벼락' 리더 **윤제**

피아노 락밴드 '순이네 담벼락'의 리더 윤제(34·본명 성종훈)가 정규 1집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발표하고 솔로 활동에 나섰다. 싱어송라이터 윤제는 2013년 3월 '해빙(解氷)', 4월 '일각여삼추', 6월 '집으로 가는 길', 12월 '고양이, 청' 등 솔로 음원을 발표하면서 밴드 활동과 함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왔다. 이번 솔로 앨범에는 그 동안 발표했던 음원과 신곡 5곡을 모아 11곡을 담았다. 오는 6월 26~27일 홍대 폼텍 웍스홀과 잭비님블에서 각각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홍대 공연을 마친 뒤 전국 투어도 준비하고 있다.

소중한 기억들, 곡 하나하나에 담아

◆ 기억의 회상

앨범 타이틀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찬송가의 한 구절이다. 바쁜 일상 속에 잊고 지냈던 추억을 되새기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함께 노래하던 다섯 소년이 고향을 벗어나 본격적인 그룹 활동을 하고, 인생의 한낮을 벗어나기 시작한 서른 언저리 앨범을 발표하고, 한 사람의 반려자가 되고, 작지만 직접 하나하나 고치면서 첫 작업실을 마련한 이런 소중한 기억들을 곡 하나하나에 담았다.

타이틀 곡 'Animation'은 주목받는 인디밴드의 리더로 또 솔로 뮤지션으로서 음악적 자아의 방황과 성장을 그렸다. 멜로디를 빼고 노랫말만 읽더라도 마치 숲을 거니는 듯한 감상에 빠져들게 한다.

"만화영화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지만 동사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뜻이 있어요. 옛날을 되짚어 보면서 기억을 통해 죽은 사물에 생명을 불어 넣고 싶었죠."

◆ 시적 가사·감성적 선율

현악기의 풍성함으로 시작하는 '일각여삼추'는 중학생인 그에게 처음 기타를 가르쳐줬던 형의 부탁으로 만든 노래다. 화려한 스트링으로 폭발적 감성을 표현한 리마스터링 버전과 목소리와 기타 선율로만 담백하게 꾸민 기타 버전 두 가지로 만들었다.

'언제나 봄'은 친구들이 코러스 지원을 했다. 풀밭에서 뛰노는 듯한 경쾌한 느낌으로 현악기, 관악기가 풍성하게 뒤를 받친다. 힘찬 드럼 비트로 시작되는 '있는 반찬에만 먹어도'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지금의 아내와 소소한 일상을 보내면서 느끼는 행복을 그리고 있다.

노랫말의 주요 소재는 사람
감상에 빠져드는 시적 가사
감성적 어쿠스틱 선율 더해

윤제는 절학적이다. 일상의 순간들을 포착해 쓴 노랫말은 시적이다. 어쿠스틱 악기로 채워놓은 선율은 그냥 쉬고 싶을 때 소파에 누워 듣고 있으면 스르르 잠이 들것 같이 감성적이고 잔잔하다.

"대중의 큰 주목을 받기 위해 조바심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순간들이 제겐 중요하죠. 가사는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주로 영감이 떠올라 써 내려가죠. 제 노랫말의 주요 소재는 사람이예요."

◆ 조급하지 않은 여유

윤제는 다른 뮤지션에 자기 곡을 주거나, 노래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크고 작은 공연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낸다. 큰 돈은 아니지만 사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 돈을 조금씩 모아 앨범을 만든다. 올 가을쯤 '순이네 담벼락'을 정리하는 2.5집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 윤제가 앨범을 만들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션이다. 세션을 꾸리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절대 컴퓨터에서 음을 뽑아 쓰지 않는다.

"요즘 노래는 대부분 빠른 비트에 전자음이 많죠. 저도 얼마든지 컴퓨터로 음을 뽑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 음은 공간의 차이, 뮤지션의 감성 이런 것들은 절대 담아낼 수가 없죠. 곡의 완성도 역시 많은 차이가 나요."

이번 솔로 앨범은 자신의 목소리에 맞는 포크 음악으로 꾸몄지만, 윤제는 락도 좋아한다.

"앞으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무대를 꾸미고 싶어요. 빠른 비트의 음악도 만들 거구요. 많은 뮤지션들이 제 곡을 원하는 날이 오겠죠. 하하."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메르스… 공연 관람객도 반토막

지역 축제 줄줄이 취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여파로 공연 관람객이 반으로 줄었다. 6월 예정된 지역 축제들은 줄줄이 취소됐다.

11일 온라인 티켓 예매사이트에 따르면 메르스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비해 6월 첫째 주 연극 예매율이 4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질병에 취약한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작품의 타격은 심각했다. 다음달 개막하려던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는 공연을 8월로 미뤘다.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예정된 가족뮤지컬 '일곱난쟁이'도 관객 안전을 위해 공연을 취소했다.

연극계는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태로 회복하기까지 반년 이상 걸렸다. 이제 겨우 회복했나 했는데 메르스로 더 큰 피해에 직면했다"고 한탄하고 있다.

6월 열리는 지역 축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강릉시와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오는 16~23일 예정했던 2015 강릉단오제를 취소했다. 강릉단오제는 올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의미있게 치르려 했지만 메르스에 발목이 잡혔다.

18~21일 예정됐던 영광 법성포 단오제를 비롯해 전주단오제, 경산자인단오제, 수원 영통청명단오제 등도 모두 중도 무산됐다. 6월 최대 축제로 꼽히는 서산의 한산모시문화제(11~14일 예정)도 올해는 볼 수 없게 됐다. /김민준기자

CHAPTER 1.
낭만여행
〈미드나잇 인 파리〉 [6/4 ~ 6/10]
〈비포 미드나잇〉
〈사랑을 카피하다〉

CHAPTER 2.
예술과 인생
〈마지막 4중주〉 [6/11 ~ 6/17]
〈그레이트 뷰티〉
〈리스본행 야간열차〉

CHAPTER 3.
사랑의 속성
〈아무르〉 [6/18 ~ 6/24]
〈우리도 사랑일까〉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CHAPTER 4.
나를 찾아서
〈와일드〉 [6/25 ~ 7/1]
〈프란시스 하〉
〈꾸뻬씨의 행복여행〉

CHAPTER 5.
가족의 의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7/2 ~ 7/8]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자전거 탄 소년〉

CHAPTER 6.
영혼을 울리는 음악
〈비긴 어게인〉 [7/9 ~ 7/15]
〈인사이드 르윈〉
〈위플래쉬〉

주최 • 씨네큐브 · 티캐스트 cinecube tcast 후원 • 흥국생명보험(주) 예술영화관 씨네큐브는 문화콘텐츠의 선두주자 티캐스트가 운영하고 흥국생명이 지원합니다. www.icinecube.com www.facebook.com twitter.com/iCinecube
협력 • 그린나래미디어(주) | 더블앤조이 픽쳐스 | (주)유제엔터테인먼트 | 미디어소프트 | (주)블루미지 |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 영화사 진진 |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 찬란 | 판씨네마(주) | (주)팝엔터테인먼트 | CGV아트하우스

욕심 부리지 않고 이룬 시리즈의 부활

14년 만의 속편… 원작에 대한 존경 담아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쥬라기 월드

11일 개봉한 영화 '쥬라기 월드'는 '쥬라기 공원' 시리즈의 부활을 알리는 작품이다. 시리즈로는 14년 만에 만들어진 속편이다. 1993년 1편 이후 22년 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1편과 2편의 연출을 맡았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 총괄로 자리를 옮겼다. 그를 대신해 '안전은 보장할 수 없음'으로 선댄스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콜린 트레보로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의 배경은 우여곡절 끝에 테마파크로 개장한 쥬라기 월드다. 전작들이 테마파크 개장 직전에 펼쳐진 위기를 그린 것과는 사뭇 다른 설정이다. 주인공도 새롭게 바꾸었다. 공룡 유전자 조작 연구를 담당하는 클레어(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와 공룡 조련사 오웬(크리스 프랫), 그리고 클레어의 조카인 그레이(타이 심킨스)와 자크(닉 로빈스)가 이야기를 이끈다.

긴 시간 끝에 만들어진 속편이기에 전작을 능가할 볼거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쥬라기 월드'가 내세우는 볼거리는 바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룡 인도미누스 렉스다. 티라노사우르스 렉스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한 12m 크기의 거대한 공룡은 지적 능력으로 평화롭던 테마파크를 순식간에 공포의 무대로 바꿔버린다. 위기에 처한 그레이와 자크, 그리고 이들을 구하려는 클레어와 오웬의 모험이 긴박하게 펼쳐진다.

과학 기술에 대한 맹신, 그리고 자본에 대한 탐욕이 빚어내는 비극과 같은 전작들의 주제는 '쥬라기 월드'에서도 반복된다. 특히 가벼운 재미에만 집중하는 21세기에 대한 비판의 시선이 눈에 띈다. 보다 큰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인도미누스 렉스가 공원을 폐허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그렇다. 원작팬이라면 영화 후반부에 펼쳐지는 공룡들의 액션 신에서 눈을 떼기 힘들 것이다. 단순한 액션을 넘어 원작에 대한 존경을 담은 장면이기 때문이다.

'쥬라기 공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테마다. '쥬라기 월드'의 귀결점도 결국은 가족이다. 다만 영화는 클리셰를 있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관습을 비틀며 뜻밖의 웃음을 선사할 줄 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이뤄낸 시리즈의 부활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TV 하이라이트

석정 강남과 함께한 장롱면허 탈출기!

장롱면허 탈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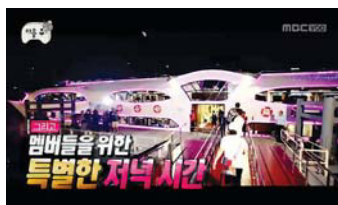
◆ MBC '나혼자산다' 금요일 오후 11시 10분

새 멤버 황석정은 장롱면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남에게 운전을 가르쳐달라고 한다. 강남은 자기만 믿으라며 큰소리를 친다. 하지만 깜빡이도 넣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고 가끔씩 브레이크 밟는 것을 잊는 황석정의 기상천외한 운전실력에 점점 사색이 되어간다. 황석정은 강남의 사정도 모르고 자신의 운전실력에 만족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SBS '정글의법칙 in 얍' 금요일 오후 10시

족장 김병만과 박한별은 상어를 만나러 간다. 남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상어들을 보며 황홀경에 젖는 것도 잠시,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상어떼 앞에서 경악한다.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 25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해외 극한 알바를 마친 멤버들은 드디어 기다리던 휴가를 즐긴다. 방콕의 산해진미와 여름 수영을 즐기면서 행복한 한때를 즐기며 10주년을 자축한다.

◆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일요일 오후 6시 10분

그동안 하하를 괴롭힌 멤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내 별이 등장한다. 별은 김종국을 타겟으로 삼고 복수를 실천하는데 열성을 다한다. 한편, 조인성과 송중기, 임주환이 런닝맨을 깜짝 방문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일 (토)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2시 10 국악한마당 16시 10 징비록 (34회) (재) 17시 10 동물의 왕국 18시 00 동행 19시 10 다큐 공감 20시 00 8.15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21시 40 징비록 (35회) 0시 00 콘서트 7080	12시 30 오렌지 마말레이드 (6회) (재) 15시 05 슈퍼맨이 돌아왔다 16시 45 프로듀사 (9회) (재) 18시 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21시 15 프로듀사 (10회) 22시 35 연예가 중계 23시 45 인간의 조건 3 – 도시농부 0시 55 후아유 – 학교 2015 (13회) (재)	13시 50 MBC스포츠 2015 아시아 리듬체조 선수권대회 16시 00 쇼! 음악중심 17시 00 우리 결혼했어요 18시 20 무한도전 (432회) 20시 45 여자를 울려 (17회) 22시 00 여왕의 꽃 (27회) 23시 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0시 35 라디오스타 스페셜	12시 00 상류사회(재) 14시 20 런닝맨 (재) 17시 00 오!마이 베이비 18시 25 놀라운대회 스타!킹 20시 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시 00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17회) 23시 10 그것이 알고 싶다 0시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재)	12시 00 최고의 요리비결 (종합 1~5) (재) 15시 50 청춘! 세계도전기 (재) 17시 50 장학퀴즈 (957회) 18시 40 한국기행(종합 1~2) (재) 20시 15 다문화 고부 열전 (재) 21시 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종합 1~3) (재) 22시 35 장수의 비밀 (재) 23시 05 세계의 명화 <유주얼 서스펙트>	11시 30 비정상회담 스페셜 (49회) 13시 20 유자식상팔자 (105회) (재) 15시 55 냉장고를 부탁해 (30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20시 40 사랑하는 은동아 (6회) 21시 5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19회) 23시 00 엄마가 보고있다 (8회) 0시 40 김제동의 톡투유 스페셜 (6회)

14일 (일)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2시 10 전국노래자랑 13시 20 스카우트 2 16시 10 징비록 (35회) (재) 18시 00 열린 음악회 19시 10 도전 골든벨 21시 40 징비록 (36회) 22시 30 역사저널 그날 23시 20 희망의 꽃이 되리라	11시 45 해피 투게더 스페셜 13시 10 프로듀사 (10회) (재) 14시 20 파랑새의 집 (재) 16시 50 해피선데이 (545회) 19시 55 파랑새의 집 (34회) 21시 15 개그 콘서트 (800회) 22시 55 다큐멘터리 3일 23시 55 스타일 포 유 (11회)	12시 10 출발! 비디오 여행 13시 15 화정 (17·18회) (재) 15시 45 섹션 TV 연예통신 16시 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20시 45 여자를 울려 (18회) 22시 00 여왕의 꽃 (28회) 23시 15 시사매거진 2580 0시 05 어게인 스페셜	12시 10 돌아온 황금복 스페셜 (재) 13시 15 가면 (재) 15시 40 SBS 인기가요 16시 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시 45 특집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시 00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18회) 23시 10 SBS 스페셜	12시 30 극한 직업 (재) 13시 20 명의 (재) 14시 15 일요시네마 <어바웃 어 보이> 16시 00 야옹멍멍 귀여워-강아지들1 17시 35 세계 테마 기행 (종합 1~4) (재) 20시 15 EBS 다큐 프라임 (종합 1~3) (재) 23시 00 한국영화특선 <돌맨발의 꿈>	13시 20 썰전 (119회) (재) 14시 40 비정상회담 (49회) (재) 16시 1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19회) (재) 17시 25 사랑하는 은동아 (5·6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20시 4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회) 21시 45 김제동의 톡투유 (7회) 23시 00 닥터의 승부 (179회)

골문 앞 일렬 횡대… 하늘로 쏘아올린 방망이

스포츠 주간 해프닝

골문 앞 일렬 횡대

K리그에서 골문 앞에 수비들이 벽을 세우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6일 인천 축구전용구장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15라운드에서 인천은 전반 17분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간접 프리킥 찬스를 얻었다. 이천수의 드로인을 김도혁이 받아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공이 전남 수비 임종은의 발을 맞고 나서 김병지의 품에 안긴 것이다. 주심은 이것을 백패스로 판단해 인천의 간접 프리킥을 선언했다.

공은 페널티킥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놓였다. 전남은 이에 공격수를 포함해 모든 선수를 골라인 바로 앞에 세웠다. 10명의 필드플레이어가 골대 앞에 촘촘하게 서있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키커로 나선 이천수도 거대한 장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발을 떠난 공은 김병지의 쇄도에 막혔고 오히려 전남은 이를 기회로 삼아 역습을 펼쳐 득점에 성공했다.

K리그 인천 대 전남 간접프리킥. /SBS

하늘로 쏘아올린 방망이

프로야구에서 타자가 휘두른 방망이가 손에서 빠져 선수들에게 날아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한화의 경기에서 8회말 타석에 들어선 이영욱은 투수 탈보트와 대결했다. 이영욱은 초구를 노려 풀스윙했지만 탈보트의 직구를 헛스윙하면서 방망이를 놓쳤다. 손에서 떠난 방망이는 하늘 높이 올라가 상대팀 한화의 선수들이 몸을 푸는 불펜으로 날아갔다. 하마터면 선수들이 방망이에 맞아 부상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다행히 신속하게 대피했고 애꿎은 빈의자들만 봉변을 당했다.

넥센 문우람. /연합뉴스

유니폼 빌려 입은 문우람

넥센의 용병 투수 밴헤켄이 좌익수로 그라운드에 나서는 해프닝이 펼쳐졌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것은 문우람이었다. 문우람이 밴헤켄의 유니폼을 빌려 입고 경기를 치른 것이다.

1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넥센과 기아의 경기에서 문우람은 8회말 대수비로 나서 박헌도와 교체투입됐다. 그러나 문우람의 유니폼에는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가 아닌 밴헤켄의 이름과 등번호가 적혀있었다. 갑작스럽게 1군에 콜업되는 바람에 미처 유니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우람은 이날 오전 9일 광주에서 열린 KIA와의 경기에서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한 용병 스나이더 대신 1군으로 콜업됐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탓에 하는 수 없이 여유분을 가지고 있던 밴헤켄의 유니폼을 빌려 입고 경기를 치러야 했던 것이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11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랜드 오코 콜리세움에서 열린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상대 투수 제시 한의 공에 맞는 텍사스의 추신수. /AFP연합뉴스

강정호, 3안타 멀티 히트

추신수, 2경기 연속 안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부진의 늪에서 탈출했다.

강정호는 11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로 맹활약했다.

1회말 첫 타석에서는 3루 땅볼로 아웃되면서 부진이 이어지는가 싶었지만 4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2스트라이크 이후 집중력을 발휘해 우중간 2루타를 기록했다. 6회말 세 번째 타석에서는 무사 1, 2루에서 좌전 안타를 때렸다. 8회말 1사 1루에서 들어선 네 번째 타석에도 단타를 쳤다.

이로써 시즌 타율이 0.266에서 0.280(132타수 37안타)으로 올랐다. 멀티히트(1경기 2안타 이상)를 작성한 것은 지난달 27일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 이후 15일 만이다. 3안타는 22일 만이며 시즌 네 번째다.

피츠버그는 이날 선발투수 찰리 모튼이 7⅓이닝 동안 3피안타 6삼진 3볼넷을 기록하며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도 2경기 연속 안타를 치며 흐름을 이었다.

추신수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원정경기에 2번타자 우익수로 선발출전해 4타수 1안타 1사구 1득점을 기록했다. 0-1로 뒤진 3회 무사 1, 2루에서는 오클랜드 선발 제시 한의 공에 등을 맞아 첫 출루에 성공했다. 4회에는 안타에 이어 득점을 올렸다. 팀 동료 모어랜드의 우전 안타로 홈을 밟으면서 시즌 29번째 득점을 올렸다. 시즌 타율은 0.246(207타수 51안타)을 유지했다. 텍사스는 9회말 오클랜드의 샘 플루드에게 끝내기 역전 안타를 맞고 4-5로 패배했다. /하희철기자

메시 '탈세 혐의'로 법정 선다

축구스타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27·사진)가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선다.

11일(한국시간) 스페인 언론 엘 파이스 등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상급 법원은 메시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게 해달라는 탄원을 지난 10일 최종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메시는 아버지 호르헤 메시와 함께 2007시즌부터 2009시즌까지 400만 유로(약 54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아왔다. 스페인 검찰은 애초 탈세 규모가 파악돼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며 메시를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메시가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부친의 범죄를 알고 허락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의 판단을 뒤집었다.

메시 측은 지난해 10월 탈세는 메시가 전혀 모르는 사이 부친이 모두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탄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상급 법원에 재차 탄원을 냈지만 이날 최종 기각 통보를 받게 됐다. 이로써 메시는 법정에서 자신의 탈세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릴 처지에 놓였다. /하희철기자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11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파크 생로랑에서 회복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14일 코스타리카전 '배수의 진'

FIFA 여자월드컵

월드컵 첫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코스타리카와 맞붙는다.

한국(18위)은 14일 오전 8시(한국시간·MBC 중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5 FIFA 여자월드컵 E조 예선 2차전에서 가장 약체로 꼽히는 코스타리카(37위)와 대결한다.

10일 열린 브라질과의 1차전에서 0-2 무기력한 패배를 한 한국은 현재 조 최하위다. 코스타리카가 스페인과 무승부를 거둬 승점 1점을 따놓은 상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경기에서 승점을 얻어야 16강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여자월드컵은 24개국이 출전하기 때문에 조3위까지 16강 진출의 기회가 주어진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많은 골을 넣어야 순위 다툼에서 유리하다. /하희철기자

Hyundai Motors Secret fund incident… Life Sentence Became Suspension of Prosecution

<현대차 비자금 정의선 사례… 무기징역범을 기소유예>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prosecutor may choose not to file indictment and be given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s as authority. Suspension of Prosecution follows the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s. The Hyundai Motors secret fund incident, which Jung Mong Ku was the main culprit, is one of the case how the prosecutors took their stands in front of the 'Strong.' Chairman Jung was sentenced 3 years in prison and 5 years probation. Although Chairman Jung committed a life sentence crime, the prosecutor ordered suspension of prosecution to Jung Eui Sun .They stated that it's not right to prosecute the father and the son at the same time.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면담하는 아버지 정몽구 회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기소편의주의를 검사의 고유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 기소유예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것이다.

정몽구 회장이 주범이었던 '현대차 비자금 사건'은 진정한 '강자'앞에서 검찰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정 회장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형을 받았다. 검찰은 정의선 부회장이 최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기소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기소유예 이유였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4					9	
9					4			
						2	5	4
		1	8		3		4	
		9		5		7		
	4		1		6	8		
6	3	2						
			2					8
	9					4	7	

		5					4	3
	7	1					9	
3				9				
				5				2
5	9		4	3	6		7	1
6				1				
				6				9
	5					7	2	
1	4					3		

스도쿠 정답

2	5	4	6	8	7	1	9	3
9	1	3	5	2	4	6	8	7
7	8	6	9	3	1	2	5	4
5	2	1	8	7	3	9	4	6
8	6	9	4	5	2	7	3	1
3	4	7	1	9	6	8	2	5
6	3	2	7	4	8	5	1	9
4	7	5	2	1	9	3	6	8
1	9	8	3	6	5	4	7	2

9	6	5	1	8	7	2	4	3
4	7	1	6	2	3	5	9	8
3	2	8	5	9	4	1	6	7
7	1	4	9	5	8	6	3	2
5	9	2	4	3	6	8	7	1
6	8	3	7	1	2	9	5	4
2	3	7	8	6	5	4	1	9
8	5	9	3	4	1	7	2	6
1	4	6	2	7	9	3	8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건축경기 안좋은데… 전공을 바꿔야 할까요?
안정성만 중시한 선택은 더 큰 문제 부를수도

진실남 남자 94년 양력 7월 29일 20시

Q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메트로신문의 '사주 속으로'를 보게 되었는데 인생 진로에 대한 상담 조회가 많은 것을 보니 저도 제 아들에 대한 진로를 여쭙게 됐습니다. 아들은 올해 22살로 7월 29일 양력 20시가 생일입니다. 현재 명문대학교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건축 경기도 안 좋고 본인 자신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하거나 좋아 하는 분야가 없어서 더욱 난감합니다. 진로를 잘 잡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사회 첫발이 오락가락 하게 되어 부모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A 아들은 병진(丙辰)생일주로 여름에 태어났는데 화토기(火土氣)가 강하여 모든 일에 정확하고 꼼꼼합니다. 관성인 질서에 충이 있으니 시간 약속은 다소 어길 수 있으며 성격은 온화하고 정이 많은데 다른 사람을 잘 믿고 포용력과 책임감도 있어서 환영받는 스타일입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지나치게 정에 기대는 습성이 있어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지금이 그러한 시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뜻을 품어서도 아니고 단지 현재 흐름의 경기가 안 좋아 진로를 변경한다면 언젠가 풍파가 올 시기에는 자신이 감당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공도 직장도 일정 부분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주의 그릇에다 자신의 노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모두가 기대하는 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면에서 볼 때 부모로서 아들이 직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나 학생 본인은 전공 선택 기준을 안정성을 너무 중요시 하여 자신의 적성이나 뜻에 맞지도 않는 직업을 선택 한 결과 나중에 경제적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보람찬 일을 하지 못하여 행복을 느끼는 것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이익 수입을 찾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하여 행복을 찾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얘기로 들립니다.

수익과 안정성은 전공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노력 결과로 봐야 합니다. 학문(學文)인 인수에 충돌이 있으니 차후 직장 들어가서도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한번 들어가는 처음 시기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12일 (음 4월 26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어려운 쪽을 선택하세요. **60년생**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72년생** 가족 화합에 노력하면 길하게 됩니다. **84년생**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49년생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게 좋습니다. **61년생**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보세요. **73년생**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85년생** 목표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0년생 활동 무대에 변동이 생기고 바쁘게 움직이세요. **62년생**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74년생** 못마땅한 상황을 스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86년생** 다른 사람 일을 대신할 게 많습니다.

51년생 고의든 타의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63년생** 참지 않는 자에게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75년생** 말만 무성하고 결과가 안나옵니다. **87년생** 본인 감정보다는 배려하는게 좋습니다.

52년생 도와주어야 할 곳은 많고 실속은 없습니다. **64년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하루입니다. **76년생**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53년생 잘 대처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65년생** 상대방에게 예의 있게 대하면 좋습니다. **77년생** 고생한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89년생** 때문 내 이익도 추구해야 합니다.

54년생 주위에서 오해해도 꿋꿋하게 대처하세요. **66년생** 마음이 좋지 않아도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78년생** 약속은 지키는게 좋습니다. **90년생** 노력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55년생 가족간에 양보하는게 좋습니다. **67년생** 산 넘어 산이니 문제가 계속됩니다. **79년생** 가까운 곳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91년생**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행동하는게 좋습니다.

56년생 뭉치면 좋고 흩어지면 어렵습니다. **68년생** 친절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80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하면 이루어집니다. **92년생** 리더쉽을 가지고 주위를 잘 이끌게 됩니다.

57년생 칭찬은 많이 하고 결정은 천천히 하세요. **69년생**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 기분이 좋습니다. **81년생** 긍정적으로 대처할수록 이득이 많습니다. **93년생** 인연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58년생 일관되게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70년생** 상황은 좋지 않지만 주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82년생** 주변 사람이 잘 도와주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94년생** 이동수가 있습니다.

59년생 원하는 것을 얻지만 손실도 따릅니다. **71년생** 지위에 구애받지 말고 일관되게 대처하세요. **83년생**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95년생** 마음을 좋게 가지면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염지은의 유통바로보기

실체 없는 착한 면세점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적 공약이 남발됩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보다 눈앞의 표만을 의식해 뭘 많이 주겠다거나 지난날에는 없었던 것들을 만들겠다는 등등의 약속들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뭘 많이 주겠다는 약속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부담되며 나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불필요한 곳에 불필요한 돈을 쓰는 일은 투자가 아니라 낭비일 뿐입니다.

최근 선거철처럼 약속이 남발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 전쟁터입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상생'을 저마다 외치면서 갖가지 거대한 약속들을 쏟아 내놓고 있습니다. 약속대로만 된다면 서울은 세계 제1의 관광 도시이자 착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의 상생 약속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뜬구름 잡기식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SK네트웍스는 동대문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대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대형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타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K패션의 글로벌 명품화를 선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동대문 상인들과의 상생은 동반성장 펀드 조성, 온누리상품권 증정,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전부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패션산업 집적지의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는 중국 최대 여행사인 CTS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심형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주변 관광 콘텐츠와 연관된 허브형 면세점을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용산이 갖는 입지를 살린 구체적인 상생 계획은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IT 강국의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용산전자상가를 끼고 있으면서 일본의 '아키하바라'처럼 만들겠다는 선언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한화갤러리아는 63빌딩이 갖는 장점을 살려 한강 수상 레포츠, 여의도 봄꽃축제 등을 연계해 여의도 관광 인프라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역시 상생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관광 인프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상생면세점을 표방, 중소·중견기업과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했지만 실상 상생 대상인 중소·중견 기업은 주주로 참여한 기업들이 전부입니다.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관광특구로 지정된 코엑스 단지 내에 있어 최적의 관광 인프라를 갖췄다는 설명만 있을 뿐, 역시 지역 상생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면세점 운영으로 얻은 영업이익의 20% 이상을 매년 사회에 환원하겠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랜드그룹은 제휴한 250개 중국 유통 대기업을 적극 활용해 VIP 100만명 유치 등 중국 관광객을 적극 끌어 오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상생에 대해선 기존 이랜드가 해오던 순이익 10% 사회 기부 약속이 전부입니다.

신세계그룹은 과장된 홍보로 도마위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백화점인 본점 본관 건물 전체를 면세점으로 파격 전환시켜 프리미엄 문화 면세점을 만들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한국 자본으로 세워진 진정한 의미의 국내 최초 백화점은 화신백화점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인근 남대문시장과 상생을 추구하는 동반 면세점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남대문 시장 수입상가 상인들은 신세계 본점 면세점 입점으로 피해를 볼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입찰 신청서를 낸 대기업 7곳과 중소·중견기업 14곳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벌이고 전문가와 관계특허 심사위원회를 꾸려 내달 중에 적임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착한 기업을 제대로 뽑아 면세점을 통해 지역 상권의 리더십을 갖게 하려면 포퓰리즘적 약속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어야 겠습니다.

불법다단계 휴대폰 판매, 위험 크다

기자 수첩

정 문 경
<산업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다단계 판매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의 현행법 위반 소지를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성행을 이루고 있는 다단계 판매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IFCI · B&S솔루션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를 두고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 국회까지 가세하면서 조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서울YMCA는 지난달 말 IFCI·B&S솔루션 등이 방판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각종 온라인 카페나 휴대폰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다단계 통신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새 (대리 신청으로)가입이 돼 있었다', '기기값 할인 판매 분 만큼 페이백으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더니 안들어온다', '페이백 40개 준다더니 라면 40개가 왔다' 등의 사례도 다양하다. 특히 일부 네트워크 판매원이나 판매업체의 경우 수백만원의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하부조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인적 판매의 특성상 불법 페이백 등 과다 지원금 · 수수료 지급 등의 불법 행위 소지가 있다. 게다가 여러가지 파생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통 다단계 판매는 2002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불폰 위주로 꾸준히 있어왔다. 단통법 시행 이후 후불폰으로 판매 대상이 확대됐다. IFCI는 전국 110여개에 달하는 교육장과 개통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세를 불리고 있다. 매월 다단계로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은 2만명 안팎으로 파악된다.

불법다단계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애꿎은 소비자와 일반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 시 일반 판매원 수입은 수만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매월 수백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과장광고가 문제다.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원 인증제도를 갖추고 네트워크 판매원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판매대리점 보다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다면 불법판매와 구매 유혹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소해 보이는 계약이라도 국제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해야

김재현 변호사의 BizLaw

해외영업력이 없는 국내기업은 수출이나 시장개척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해외에 네트워크가 있는 에이전트 등을 의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들과의 계약을 부주의하게 체결하면 상호간에 오해가 생기게 되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한국의 A사는 미국의 B사가 미주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내용을 검토하지 않고서 B사와 영문으로 된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거래를 해 보니 B사는 A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지 않았다. A사로서는 이런 B사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B사가 어떤 바이어를 데리고 한국에 오겠다고 하여 알아 보니 이 바이어는 A사가 수년 전부터 업무차 연락해 오던 바이어였고, 업계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큰 회사였다.

A사는 B사에게 이번 거래에 대하여 커미션을 요구할 생각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알렸지만, 거래가 성사가 되자 B사는 커미션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미국법원에 제기하였다. 소송이 생기자, 이 바이어의 담당자도 B사가 거래의 성사에 역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적어도 계약서 내용상으로만 보면 B사가 이런 소송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국제계약 경험이 없는 A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그 계약으로 인해서 수출거래에 새로운 걸림돌이 생기게 된 것이었다. A사는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여 이 분쟁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처음부터 계약을 신중하게 체결하였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분쟁이었던 것이다.

한국기업들은 국제거래를 하면서 중요한 계약은 제대로 검토하여 체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비밀유지협약(Confidentiality Agreement)과 같은 계약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대충 체결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소한 계약인 것처럼 보여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계약에 서명을 할 때는 그 계약의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인 사

■ 의정부시
△4급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이우복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이탁재 △5급 ▷공보담당관 고진택 ▷총무과장 이경재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세정과장 공완식 ▷징수과장 윤종갑 ▷회계과장 오영춘 ▷지역경제과장 이광식 ▷위생과장 김경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보육과장 김희정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도시과장 최석문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수도과장 나수곤 ▷의정부2동장 김태성 ▷호원1동장 김인숙 ▷송산1동장 홍정길 ▷의정부3동장 직무대리 이원선 ▷신곡2동장 직무대리 남상빈 ▷송산2동장 직무대리 김성도 ▷가능1동장 직무대리 이용기

■ JIBS제주방송
▷기획심의부장 송종훈 ▷제작부장 송철민 ▷편집부장 신윤경 ▷기술국장직무대리 김용관 ▷기술관리부장 양은철 ▷미래전략부장 박병춘 ▷기획심의부 정효성 ▷콘텐츠사업부 이용탁

■ 아시아타임즈
▷산업부장 이종수 ▷금융증권부장 권진안

부 고

▲ 오광섭(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전 MBC 논설위원)씨 별세, 송숙희(주부)씨 남편상, 오서현(엔씨소프트 과장)·채현(학생)·동현(학생)씨 부친상, 오장섭(전 국회의원·전 건설교통부 장관·충청향우회 총재)·광숙(사업)·성섭(분당 21세기 치과병원장)씨 형제상, 심영진(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씨 시숙상=11일 강남 세브란스, 발인 13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산추모공원, 02-2019-4000

▲ 심익섭씨 별세, 재문(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오피니언부장)·승훈(헌법재판소 홍보팀장)·재선(한국수출입은행 플랜트금융1부 팀장)씨 부친상, 이여옥(신한은행 창신금융 센타 지점장)·채복례·탁옥경(금융투자협회 푸르니 어린이집 원장)씨 시부상=11일,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3일, 장지 천안 성환공원 묘원, 02-860-3550

▲ 용옥수씨 별세, 박순철(대구지검 제2차장검사)씨 모친상=11일 오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 발인 13일 오전 7시, 031-787-1500.

▲ 홍은식씨 별세, 홍재경(중부일보 부국장)씨 부친상=11일 오전 10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3일 오전 9시, 032-472-0873

수익안심 보장제도

- 계약즉시 수익지급
- 5년 후 원분양가 + α 로 환매 조건
- 10년간 연 12% 임대수익 + 연4%이자지원

(박00, 68세, 공무원)

요즘 누가 은행에 돈맡기나요? 수익률이 6배나 더 높은데

월급쟁이로 착실하게 살아오면서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바닥을 치면서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은행처럼 안전이 보장되면서 수익률은 예금보다 6배나 높은 강원라마다 호텔&리조트, 저금리시대에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대안이 있을까요?

(황00, 49세, 자영업)

2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바로 내 통장에 입금돼야죠

호텔투자가 대세라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대부분 호텔들이 계약 후 2년 쯤 되어야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2년이 어디 적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강원라마다 호텔&리조트는 준공리스크 없이 계약 즉시 수익 발생하더군요. 역시 믿음이 갈 수 밖에 없죠.

(최00, 53세, 전문직)

과자 하나도 브랜드를 보는데 호텔도 당연히 브랜드를 따져야죠.

아파트도 브랜드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높은 것처럼 호텔도 브랜드를 따질 수 밖에 없잖아요. 세계1위 윈덤그룹의 라마다 브랜드라면 확실히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라마다 중에서도 상위브랜드인 호텔&리조트라 부대시설부터 차원이 다르니 선택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죠.

(김00, 56세, 기업임원)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안전해야 믿고 투자하지 않겠어요?

인생 백세시대라고 하잖아요. 은퇴는 빠른데 노후는 길어서 안심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 오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강원라마다 호텔&리조트는 10년간 연 12%임대수익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5년 후에는 원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환매가 가능하다니, 이렇게 안심이 되는 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임00, 39세, 회사원)

여름 한철에만 반짝하는 호텔들과는 비교가 안되죠

여름 한철만 반짝하는 관광지의 호텔에 투자하기는 좀 불안했어요. 하지만 강원라마다 호텔&리조트는 4계절 풍부한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비수기가 없는 호텔인데다가 연간 1,200만명의 풍부한 수요를 갖춰 여기다 싶었죠. 더구나 평창동계올림픽 특수까지 누릴 수 있으니 투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신00, 55세, 은행원)

신뢰할 수 있는 호텔운영, 이보다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호텔투자의 핵심은 호텔 운영수익이잖아요. 그러니 운영사가 어디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죠. 강원라마다 호텔&리조트는 국내 최고의 호텔운영사 산하HM이 책임지고 직접 운영을 하는데다가 윈덤 본사와 기술 자문 및 책임 약정까지 체결했으니 운영노하우 걱정 전혀 없이 마음 편하게 수익을 누릴 수 있어 참 좋네요.

4천만원대로 별장으로 마음껏 쓰다가 안쓸땐 높은 수익까지!

별장·호텔·수익 세가지를 모두 누릴수 있다?

강원 라마다 호텔 & 리조트는 가능합니다!

국내최초!

- 윈덤본사와 기술 자문 및 책임 TSA 약정체결!
- 별장으로 쓰다가 안쓸때는 고수익 발생!

강원라마다호텔에 '테디베어 올림픽 테마파크' 개관 예정

테디베어 MOU

여행사 MOU

태백 레이싱파크 MOU

청약방법	· 외환은행 630-009601-061 · 청약금 :100만원 · 예금주 :(주)생보부동산신탁 ※미 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환불됨
분양문의	02)771-5000

| 운영사 (주)산하HM | 분양대금관리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 |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주)케이램 아키텍 www.klambarchi.com | 시행사 (주)월드스포츠

※생보부동산신탁은 상기 '수익금 지급 및 관리'와 무관합니다.

- ■대지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4-10 외 ■대지면적 : 7,186㎡(컨벤션 및 기타부지 제외) ■건축규모 : 15,133.58㎡(지상면적 14,186.06㎡ / 지하면적 947.52㎡)
- ■시설규모 : 객실 305실, 10개동(동당 30~31실) ■객실타입 : Standard 177실, Deluxe 90실, Suite 28실, 단체실 10실(총 305실)
- ■본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